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碩士學位論文

『세일즈맨의 죽음』에 나타난
윌리 로먼의 소외의 원인과 양상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英語教育專攻

許 恩 熙

2017年 8月

『세일즈맨의 죽음』에 나타난 윌리 로먼의 소외의 원인과 양상

指導教授 宋 一 商

이 論文을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17 年 6 月

許恩熙의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 ①

委 員 ----- ①

委 員 ----- ①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2017年 8月

<국문초록>

『세일즈맨의 죽음』에 나타난 윌리 로먼의 소외의 원인과 양상

許 恩 熙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指導教授 宋 一 商

아서 밀러(Arthur Miller, 1915-2005)의 대표작 『세일즈맨의 죽음』(*The Death of a Salesman*)은 소시민(common man)으로 대변되는 주인공 윌리 로먼(Willy Loman)이 물질만능주의가 만연한 자본주의사회에서 시대착오적인 가치관을 갖고 자신만의 아메리칸 드림(American Dream)을 추구하는 삶의 모습과 그로 인해 겪는 인생 파멸의 과정을 그리고 있다. 그가 꿈꾸는 아메리칸 드림은 세일즈맨으로 성공하여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누리는 것이지만 정작 본인은 목가적인 생활에 대한 동경을 지니고 있다. 이 두 가지 모순된 꿈 사이에서 윌리는 방황하며 주변 인물들과 사회로부터 소외감을 느끼고 좌절하는데 이는 그의 성격적 결함에서 기인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본 논문은 윌리 개인의 성격적 결함으로 인해 가족과 사회로부터 소외되었다는 관점에서 그 원인과 양상을 살펴보고 그 의미를 논의하는 데 목적을 둔다.

윌리는 자신의 생각과 주장을 타인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강압적인 면을 보이는데, 그로 인해 그는 가장 가까운 존재인 가족들과도 진정한 소통을 나누지 못하고 소외감을 느낀다. 그리고 윌리는 아버지, 형 벤(Ben), 그리고 데이브 싱글맨(Dave Singleman)의 서로 다른 가치관을 여과 없이 받아들여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불안한 자아를 형성한다.

이와 같은 윌리의 자기중심적 성격과 불안한 자아형성으로 인해 가족과 사회로부터 소외감을 느낀다. 먼저 가족 간의 관계로는 그의 그릇된 가치관으로 키워진 자식들, 특히 장남 비프(Biff)는 서른이 넘도록 일정한 일자리 없이 방황하고 차남 해피(Happy)는 여성편력이 심한 성인으로 성장한다. 그리고 아내 린다(Linda)가 윌리의 죽음 앞에서 이해하지 못 하겠다는 말을 되풀이하는 모습에서 아내와의 관계에서도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사회적 고립의 측면에서 본다면 윌리는 하나뿐인 친구인 찰리(Charley)와의 관계에서도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그와의 대화중에도 환상에 빠진다. 또한 찰리의 아들 버나드(Bernard)가 바람직한 법률가로 성장한 모습과 대비되는 비프를 보면서 자식교육에서도 실패했다는 사실에 찰리로부터 소외감을 느낀다. 자본주의 사회로 대변되는 하워드(Howard)와의 관계에서도 윌리는 무능력자로 평가 받고 해고당한다.

또한 그는 주변이 꼭 막힌 아파트에서 살고 있지만 전원생활을 동경하는 모습에서 낭만적이고 목가적인 기질의 면모를 아직도 간직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윌리가 현재 살고 있는 장소에서 자신이 바라는 전원생활은 애초에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내면적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주변 환경에 대해 끊임없이 불만을 토로하면서 주변 환경으로부터, 사회로부터 철저하게 소외당하며 고립된다.

결론적으로 『세일즈맨의 죽음』을 통해 한 개인의 성공을 위한 삶을 위해서는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자신의 올바른 적성과 재능을 바탕으로 삶을 살아가는 건전한 가치관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불어 개인은 가정과 사회 속에서 필연적이며 유기적인 관계를 맺는 존재임을 깨닫고, 서로를 이해하고 책임을 질 수 있는 도덕성을 가져야 한다. 또한 가족관계 속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여질 때 건강한 자아가 형성되며 동시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관계의 소외를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자기 자신이 처한 상황을 정확히 바라볼 수 있는 안목과 자신의 삶을 이끌어줄 올바른 가치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본 논문은 2017년 8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임.

목 차

I. 서론	1
II. 소외의 원인	6
1. 자기중심적 성격	6
2. 불안한 자아 형성	12
III. 소외의 양상	21
1. 가족으로부터의 좌절과 절망	21
2. 사회로부터의 고립	33
IV. 결론	39
참 고 문 헌	42
Abstract	45

I. 서론

아서 밀러(Arthur Miller, 1915-2005)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현대 미국 연극을 대표하는 극작가로 그의 미국적인 소재와 “소시민(common man)”으로 대변되는 작품의 주인공들은 많은 관객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킨다. 즉, 보통사람이라는 한 개인이 겪는 심리적 갈등과 좌절의 문제를 단순히 개인의 차원이 아닌 그가 속한 가정과 사회의 전체적인 문제로 확대시켜 다른 사회극작가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레이몬드(Williams Raymond)는 “하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밀러는 드라마에 대한 활발한 사회 비평을 다시 부활시키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 성공의 윤리, 편견과 생각에 대한 자제력, 현대 노동관계의 본질 등 현 시대의 주제에 관해 쓰고 있다.”라고 주장한다.¹⁾

밀러는 고도로 발달된 기계문명에 따른 인간성의 상실과 그릇된 가치관, 물질만능주의에 희생되는 미국인들이 겪는 좌절과 갈등, 소외의 문제들을 작품의 소재로 다룬다. 여기에서 대두되는 개인의 문제에 대한 사회의 책임의식, 또한 사회의 문제에 대한 개인의 책임의식들을 강조하면서 이에 대한 윤리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즉, 밀러는 작품에 나타나는 한 개인의 심리적, 성격적 묘사를 당시 사회현상이 반영된 모습으로 표현하여 개인과 사회와의 유기적 관계에 대한 본질과 그 관계의 필연성에 관심을 가졌다. 이러한 관점에서 밀러 자신도 우리 인간은 단순하게 자기 혼자나 가족 내에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므로 자신이 속한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성실함과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회는 사람들 안에 있으며, 사람들은 사회 안에 있다. 현재 모습의 인간을 만들고 그리고 현재모습의 인간이 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회적 관계와 그 관계들의 힘을 이해하지 않는 한 당신은 진실하게 그려진 심리적 실체를 무대 위에 그려낼 수 없다. 마치 물고기가 물 안에 있고 물이 물고기 안에 있듯이.

society is inside of man and man is inside society, and you cannot even create a truthfully drawn psychological entity on the stage until you understand his social

1) Williams Raymond, *The Realism of Arthur Miller, Arthur Miller: Death of a Salesman: Text and Criticism*, ed. Gerald Weals (New York: Penguin Books, 1996), p. 314.

relations and their power to make him what he is and to prevent him from being what he is not. The fish is in the water and the water is in the fish.²⁾

인간과 사회와의 관계가 물과 물고기의 관계와 같다는 말은 서로 유기적으로 엮인 관계라고 해석된다. 사회란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터전임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파멸의 장소도 될 수 있는 공동운명체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인간은 혼자서 살 수 없고 또한 사회의 일부분으로서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사회도 인간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밀러의 작품에는 부정적이며 비관적인 견해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비극적 주인공이 인간성을 성취하고자 하는 모습도 찾아 볼 수 있다. 이는 인간불굴의 의지와 보통 인간의 진실한 면 즉, 비극의 주인공이 외형적으로 일시적인 패배를 보일지라도 그들의 내적인 인간승리를 보여준다. 더불어 밀러의 작품에는 인간이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교훈과 희망을 주는 교화 작용뿐만 아니라 보통사람의 선악의 구별과 도덕성에 대한 의지와 투쟁을 통해 인간의지의 승리라는 긍정적인 면을 찾아볼 수 있다. 따라서 밀러의 사회성을 반영하는 비극작품들은 결국 인간성을 파괴하는 사회제도를 공격하고, 교화 작용을 통해 우리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하는가를 알려준다. 다시 말해 책임의식의 문제를 내세우고 여러 각도에서 개인과 사회 간의 불협화음이 만들어내는 비극적 상황을 도덕적·윤리적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추구하며, 현대인의 사회적 욕구의 하나인 인간성 회복과 정의사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교화하는 것이 밀러의 사회극의 목적이다.³⁾

밀러의 대표적인 작품 『세일즈맨의 죽음』은 가족 간의 갈등을 다룬 극으로, 제목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평범한 세일즈맨의 인생이 변화하는 사회에서 적응하지 못한 채 소외되고 결국엔 파멸해가는 현대인의 비극을 그리고 있다. 이 극에 나타나는 가족 간의 관계는 작품의 중요한 구성요인으로 밀러가 살아온 우여곡절이 많은 삶의 궤적과 같이 한다. 그의 부유했던 어린 시절과 달리 이후 경제적으로 힘들었던 시기를 모두 겪은 밀러는 여러 직업들을 통해 다양한 계층의

2) Arthur Miller, *The Shadows of the Gods, The Theater Essays of Arthur Miller*, ed. Robert A. Martin (New York: The Viking Press, 1978), p. 185.

3) 허중, 『아서 밀러의 사회극』(서울: 한국학술정보(주), 2003), pp. 13-14.

삶을 경험한다. 밀러 자신의 가정환경과 불우한 환경에서 삶의 경험, 그리고 자신의 불행한 결혼생활에서 발생한 심적 갈등과 같은 개인적 경험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특히, 작품내의 인물관계를 보면, 아버지 윌리는 권위적이면서 자식을 위해 헌신하는 아버지상을 상징하며, 어머니 린다(Linda)는 남편을 존경하며 가정을 중시하는 헌신적인 아내로 전형적인 어머니의 모습이다. 미식축구선수로 등장하는 장남 비프(Biff)는 부자간의 어색한 관계를 통해 경제적으로 힘들었던 과거 자신과 아버지와의 관계를 반영한다. 둘째 아들 해피(Happy)는 자신만을 생각하며 현재의 쾌락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철부지다. 이처럼 자신의 삶이 반영된 『세일즈맨의 죽음』의 주인공 윌리 로먼(Willy Loman)은 지나치게 물질적인 성공을 중요시하며 그릇된 가치관을 자식들에게도 강요하며 34년간 세일즈맨으로 살아왔지만, 세일즈를 처음 시작할 때의 가득했던 야망과 달리 변해버린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채 점차 가족과 주변 환경으로부터 소외되어 간다. 윌리는 물질만능주의가 만연한 자본주의 현실세계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물질적인 성취의 꿈을 좇다가 결국 죽음을 맞는다. 윌리는 포터(Thomas E. Porter)의 언급처럼 전형적인 미국인으로 “미국인의 꿈”을 추구하고 있다.⁴⁾ 이 작품이 인기를 얻게 된 한 요인으로 윌리는 미국인들에게 그들 모두가 품고 있는 환상의 구체적인 이미지로서 부각되었고 그러한 환상은 말할 것도 없이 물질적 성취의 꿈이다. 더욱이 그것은 조만간에 모두가 성공의 대열에 합류할 것이라는 맹목적 낙관주의로 무장된 환상이기도 하다.⁵⁾

비평가들은 윌리의 좌절과 절망의 원인을 그릇된 가치관과 자기중심적 성격을 언급하며 그의 파멸을 개인적 원인에 두어 분석한다. 두센베리(Winifred L. Dusenbury)는 윌리의 파멸은 그 자신의 문제점으로 인한 것임을 주장하고 그의 성격적 결함과 가치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의 실패에 책임이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⁶⁾ 그리고 블룸(Harold Bloom)은 이 작품이 개인 또는 사회적 비극보다는 가족 간의 비극이라고 주장한다.⁷⁾ 이와 같은 윌리의 좌절과 절망의 비극적 결

4) Thomas E. Porter, *Acres of Diamonds: Death of a Salesman, Critical Essays on Arthur Miller*, ed. James J. Martine (Boston: G. K. Hall, 1979), p. 24.

5) 조은영, 「『Death of a Salesman』에 나타난 소외의 문제」, 『한국영어영문학회』 29.2 (1983): 434.

6) Winifred L. Dusenbury, *Loneliness in Death of a Salesman, Readings on Arthur Miller*, ed. Thomas Siebold (San diego: Greenhaven Press, 1997), p. 116.

말은 바로 그가 주변 인물들과 사회로부터 소외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 모습은 인간적인 결함과 가족 구성원들 사이의 소통의 부재와 같은 여러 가지 원인들이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로 인해 그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로 부터 소외되고 결국에는 스스로 파멸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소외(Alienation)라는 말은 현대 사회에서 일상적인 용어로 다양한 맥락에서 사용되지만 여러 상황과 학문적 입장에 따라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인다. 소외의 사전적 의미는 개인이 그가 속한 사회와의 관계에서 통합되지 못하거나 거리가 있는 상태로 정의할 수 있다.⁸⁾ 또한 소외란 세계내의 존재로서 자신을 능동적인 주체로 경험하지 못하고 세계-자연, 타자들, 그리고 자기 자신-가 자신에게 낯선 것으로 머물러 있는 것을 뜻한다. 소외는 본질적으로 세계와 자신을 수동적이고, 수용적인 태도로 객체와 분리된 주체로서 경험하는 것이다.⁹⁾ 이처럼 소외란 인간이 그 자신을 이질적인 존재로서 경험하는 한 유형을 의미하며, 우리는 이를 인간이 그 자신으로부터 소원하게 되었다고 설명할 수 있다. 소외된 인간은 그가 다른 사람들로 부터 떨어져 있듯이 그 자신으로부터 떨어져 있다. 이렇듯 소외라는 단어는 주변 친구들이나 사회에서의 인간관계 속에서 서로 어울리지 못하거나 따돌림을 당할 때 쓰기도 하고, 또 다르게는 빠르고 복잡한 환경 속에 적응하지 못한 채 무력감이나 허무함, 자괴감 등을 느낄 때도 소외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소외는 이와 같이 현대 산업사회가 발달하면서 나타난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사회가 발전할수록 더 복잡하고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도시화된 현대 사회에서는 친척이나 이웃 간의 유대감이 이전에 비해 약화되고, 서로 다른 집단 간의 마찰이나 갈등은 더 심각해진다. 여기에 사람들은 본래의 인간적인 모습을 점점 잃어가고 거대 기업이나 사회의 이익을 위한 수단이나 도구와 같은 존재로 변한다. 이처럼 거대한 조직체 안에서 인간은 마치 한낱 기계의 부속품처럼 취급 당할 때 소외를 느끼게 된다. 즉, 소외는 개인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또는 사회 등에서 단절되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변화되어가는 현실에 대한 인식

7) Harold, Bloom. *Arthur Miller's Death of a Salesman* (New York: Chelsea House, 2000), p. 9.

8) “소외”, 교육학용어사전, 2017.03.27. <<http://terms.naver.com/>>

9) 에리히 프롬, 『에리히 프롬, 마르크스를 말하다』 최재봉 옮김 (서울: 예코의 서재, 2007). pp. 95-96.

부족과 자기중심적인 성격 등으로 인해 자신으로부터 단절되는 것까지 포괄할 수 있다.

소외의 개념이 『세일즈맨의 죽음』에서 주인공 윌리를 통해 드러나는 모습은 먼저 가족으로부터의 소외이다. 윌리의 잘못된 가치관과 교육관으로 인해 장남 비프는 34살이 되도록 일정한 직업 없이 방황하고 있고, 차남 해피는 자신의 인생을 진지하게 여기지 않고 항상 여성 취향적인 생활을 한다. 윌리는 자식들 모두가 자신을 대신해 크게 성공하기를 바랐지만, 기대와는 다르게 자란 자식들은 그에게 소외감과 좌절감만을 남겨준다. 아내 린다는 또한 겉으로 보기에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전형적인 아내의 모습이지만 자신의 방식대로 남편을 상대하며 심지어 남편의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도 인식하지 못 한다. 한 마디로 남편 윌리를 허황된 꿈속에서 살도록 내버려두는 방관자적 입장이다. 두 번째는 사회로부터의 소외이다. 윌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비인간화되어 버린 개인의 존엄성보다는 효율성에 더 큰 가치를 두고 있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인간의 효용가치가 없으면 한낱 오렌지 껍질처럼 무참히 버려지며, 주변 환경 또한 윌리가 무의식적으로 원하고 있는 목가적 생활과는 거리가 있다. 빼곡하게 가득 차 있는 아파트들과 나무들조차도 심기 어려운 환경에서 그가 느끼는 이질감은 계속해서 불만을 토로하는 원인이 된다.

본 논문에서는 『세일즈맨의 죽음』의 주인공 윌리 로먼의 소외의 원인과 양상에 대해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제2장에서 윌리가 자본주의 사회의 희생자라기보다는 자기중심적 태도와 불안한 자아형성으로 스스로 가족과 친구들로부터 소외되는 원인을 윌리 개인의 문제에 주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제3장에서는 윌리의 소외감이 가족과 사회와의 관계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자식교육의 실패와 부부간의 소통의 단절로 나타나는 좌절과 친구와 사회로부터의 고립으로 인해 결국에는 스스로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문제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II. 소외의 원인

1. 자기중심적 성격

밀러는 『세일즈맨의 죽음』을 통하여, 급격한 산업화 과정을 거쳐 이룩된 고도의 현대 산업사회는 인간에게 풍요로운 물질문명을 안겨 주지만, 그와 동시에 정신적으로는 개인에게 심각한 병폐를 초래한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다.¹⁰⁾ 주인공 윌리가 40여년 가까이 일 해온 회사에서 더 이상의 효용가치가 없자 해고당한 것처럼 산업사회에서 인간은 전체 이익을 위한 하나의 톱니바퀴와도 같은 존재로 여겨진다. 이처럼 막상 개인의 쓸모가 다해지면 버려지는 사회에서 개인은 불안감, 절망감, 비인간화와 같은 감정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심리 상태와 사회현상을 포괄할 수 있는 개념을 바로 소외로 정의할 수 있다. 윌리는 복잡하고 다양하게 변하는 시대적 상황에서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자신의 현실과는 동떨어진 자신만의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다 스스로는 물론 주변사람들로부터 소외된다. 그가 꿈꾸는 아메리칸 드림은 세일즈맨으로서 성공하여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누리는 것이지만 정작 본인은 목가적인 생활을 동경하고 있다. 이 두 가지 모순된 꿈 사이에서 그는 방황하며 주변 인물과 사회로부터 소외감을 느끼고 좌절한다. 윌리의 비극은 일부는 주변 환경의 잘못, 특히 성공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심어준 벤과 린다에게 있고, 다른 일부는 이 목표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윌리 자신의 잘못에서 생겨난다.¹¹⁾

윌리의 소외의 원인은 모순된 아메리칸 드림에 대한 동경과 현재 그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의 변화에도 있지만, 동시에 그 자신의 성격적 결함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먼저, 윌리의 성격적 결함으로는 그의 자기중심적 성격을 들 수 있다. 윌리는 어떠한 일을 함에 있어서 개인의 능력이나 노력이 아니라 호감을 살 수 있는 매력을 가진 사람이 성공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또한, 그는 성실함과 같은 내적 가치에 중심을 두기보다는 겉으로 보이는 타인의 평가를 더 중요하게

10) 허중, p. 109.

11) William B. Dillingham, *Arthur Miller and Loss of Conscience, Arthur Miller: Death of a Salesman: Text and Criticism*, ed. Gerald Weals (New York: Penguin Books, 1996), p. 345.

여기며 계속해서 자기과시를 한다. 이처럼 윌리는 겉모습을 중시한 나머지 진정한 자기 내면의 가치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실수를 범한다. 이런 과정에서 그는 자신의 생각과 주장을 타인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자기중심적인 면을 보인다. 그로 인해 그는 가장 가까운 존재인 가족들과도 진정한 소통을 나누지 못하고 소외감을 느끼는 외로운 처지가 된다. 특히, 윌리의 강압적인 면은 아내 린다에게 말하는 모습에서 자주 나타난다.

린다: 올리버는 비프를 언제나 최고라고 여겼다네요.

윌리: 내가 말하려고 하잖아!

비프: 어머니께 큰 소리 치지 마세요, 아버지!

윌리: (화를 내며) 내가 얘기중인데, 왜 그래!

비프: 제발 어머니께 큰 소리 치지 마세요.

...

윌리: (린다를 향해) 빌어먹을! 항상 비프 편만 드는구먼!

비프: (사납게) 제발 큰소리치지 좀 마시라고요!

LINDA: Oliver always thought the highest of him -

WILLY: Will you let me talk?

BIFF: Don't yell at her, Pop, will ya?

WILLY: (angrily) I was talking, wasn't I?

BIFF: I don't like you yelling at her all the time,

...

WILLY: (turning on her) Don't take his side all the time, goddammit!

BIFF: (furiously) Stop yelling at her!¹²⁾ (48)

윌리는 자신의 어렵고 힘든 시절을 옆에서 묵묵히 지켜봐온 아내에게 난폭한 언행을 일삼으며 일방적으로 자신의 이야기만 한다. 린다는 윌리와 함께 가정을 꾸리며 살아가는 동안 변함없이 그를 지지하는 사람으로 묘사되지만 윌리는 아내 린다의 생활과 고통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항상 자신의 노고와 앞으로의 꿈 그리고 자식에 대한 기대에 관한 이야기만 계속한다. 린다가 자신의 생각을 말하거나, 다른 사람과의 대화 도중에 끼어들기라도 할 때면 그는 자식들 앞에서라도 아내에게 소리를 지르고 욕박지른다. 린다가 자신의 기분에

12) Arthur Miller, *Death of a Salesman* (New York: Penguin Books, 1998), p. 48. 이후의 본문 인용은 이 책에 의하며, 쪽수를 인용문 뒤의 괄호 속에 숫자로 표시한다.

거슬리는 말이나 행동을 할 경우에는 윌리는 화를 내면서 그녀의 대화 참여조차 자신의 마음대로 결정해 버리는 독선적인 태도를 보인다.

윌리의 이러한 강압적이고 자기중심적 태도는 린다를 자신의 눈치를 보고 기분을 맞춰주는 존재로 전락시킨다. 그래서 그가 바라는 허망한 꿈을 깨닫게 하거나 힘든 일들을 함께 공유하여 해결해나가려는 동반자의 역할을 못하게 하여 결국 인생의 동반자인 아내를 자신의 삶에서 소외시킨다. 특히, 윌리의 장례식 장면에서 남편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며 현실로 받아들이길 힘들어한다.

린다: 정말이지, 이해 할 수가 없어요. 하필 지금 이렇게 돌아가시다니요. 35년 만에 빛 갓아 후련해진 지금예요. 월급은 많지 않아도 되는데. 치과치료도 이제야 다 끝난 지금 말이에요.

찰리: 돈을 벌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린다: 정말이지, 이해할 수가 없네요.

LINDA: I can't understand it. At this time especially. First time in thirty-five years we were just about free and clear. He only needed a little salary. He was even finished with the dentist.

CHARLEY: No man only needs a little salary.

LINDA: I can't understand it. (110)

윌리의 자기중심적이고 독선적인 태도는 아내 린다에게 뿐만 아니라 장남 비프와의 관계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윌리: 올리버가 잘 들어주기로 유명하지, 그나저나 뭐라고 하더냐?

비프: 그 사람 말은 - (갑자기 화를 내며, 말을 멈춘다) 제가 말 좀 하게 좀 가만히 계세요!

윌리: (화를 내며 비난 하듯이) 너, 올리버를 못 만난거지?

WILLY: Famous for the way he listens, y'know. What was his answer?

BIFF: His answer was - (He breaks off, suddenly angry. Dad, you're not letting me tell you what I want to tell!

WILLY: (accusing, angered) You didn't see him, did you? (85)

윌리는 전고용주인 올리버(Oliver)가 비프의 사업계획에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리

라 기대하며 모든 일이 자신의 뜻대로 이뤄지는 데에만 관심이 있다. 실질적으로 올리버에게 비프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지만 이에 대해 윌리는 그의 능력을 과시하며 큰돈을 벌릴 수 있을 거라 비프에게 희망을 준다.

윌리의 자기중심적인 태도는 그의 사회생활에서도 여실히 나타난다. 그가 사장 하워드(Howard)에게 더 이상의 외부출장은 힘들어서 할 수 없어 내근직을 요청하러 갔을 때, 자신이 그동안 회사를 위해 평생을 바치며 노력했다며 당당하게 언급한다. 그러나 하워드에게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윌리는 가족들에게 하던 대로 큰소리를 지르며 이성을 잃는 태도까지 보인다.

하워드: (못 참겠다는 듯이) 자, 윌리, 당신은 단 한 번도 평균 이상을-

윌리: (주먹으로 테이블을 치며) 1928년도에는 내가 주 평균 수당이 170달러였소! ... 망할, 내가 지금 대체 그에게 뭐라 한거지? 세상에나, 내가 큰 소리를 치다니!

HOWARD: (impatiently) Now, Willy, you never averaged -

WILLY: (banging his hand on the desk) I averaged a hundred and seventy dollars a week in the year of 1928! ... What the hell did I say to him? My God, I was yelling at him! (62)

윌리는 자신이 부탁하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하워드에게 현재가 아닌 과거 자신의 업적에 대해 과시하며 큰소리를 치지만 결국엔 해고를 당하고 만다.

윌리의 강압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성향은 쓸데없이 자존심을 부리는 허세와 현실을 똑바로 인정하지 않으려 회피하는 나약한 성격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먼저, 그의 쓸데없이 강한 자존심과 허세는 자신의 형편없는 세일즈 실적임에도 불구하고 성공한 세일즈맨으로 가장한다. 린다에게는 친구 찰리(Charley)에게 빌린 돈을 세일즈 커미션이라고 거짓말로 위장한다. 당장 일자리를 잃어 돈을 벌 수 없는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쓸데없는 자존심을 내세우며 함께 일하자는 찰리의 권유도 뿌리친다. 또한 윌리는 자신의 자식들의 생활능력과 미래의 가능성에 대해 실망한 채 기대하고 있지 않지만 하워드 앞에서는 그들이 지금 큰 사업을 하고 있다며 끝까지 허세를 부린다.

하워드: 아드님들은 무슨 일을 하죠? 그들이 도움을 주지 않나요?

윌리: 아들들은 지금 큰 사업에 임하고 있소.

하워드: 쓸데없는 자존심 내세울 시간이 없어요. 자식들에게 가서 이젠 지쳤다고 말씀하세요. 훌륭한 애들이잖습니까?

HOWARD: Where are your sons? Why don't your sons give you a hand?

WILLY: They're working on a very big deal.

HOWARD: There is no time for false pride, Willy. You go to your sons and you tell them that you're tired. You've got two great boys, haven't you? (63)

윌리는 자기 과시적이고 강압적인 성향과 반대로 현실의 상황을 인정하고 싶지 않거나 피하고 싶을 때마다 과거의 행복했던 환상에 빠지는 나약한 태도를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자신의 나약함을 숨기기 위해 린다에게 자신의 성과를 거짓으로 이야기하고 찰리에게 빌려온 돈을 커미션이라 속인다. 그녀가 집안의 가전제품이 고장 났다고 얘기를 할 때는 흥분한 모습으로 과민반응을 보인다. 이런 모습에서 그의 가장으로서의 무력감이 잘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윌리: 어느 누가 헤이스팅 냉장고를 들어봤겠나. 내 인생 통틀어 단 한번만이라도 망가지기 전에 고장 안 나는 걸 갖고 싶네. ... 물건 값을 다 갚고 나면 못 쓰게 되도록 시간을 계산해 둔거라고.

WILLY: Whoever heard of a Hastings refrigerator? Once in my life, I would like to own something outright before it's broken! ... They time them so when you finally paid for them, they're used up. (54)

윌리의 과민반응은 아내 린다가 스타킹을 꺾는 모습에서도 나타난다. 이는 그에게 보스톤 여인과의 불륜을 떠올리게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스타킹의 의미는 윌리가 불륜을 저지른 것뿐만이 아니라, 아내 린다의 스타킹을 보스톤 여자(정부)에게 줌으로써 가족의 연대감까지 파괴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¹³⁾

윌리의 이러한 지나친 반응은 자신의 나약함과 죄의식에 대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그의 나약한 성격은 현실에서 자신의 위치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싶지 않아 도피처와 같은 환상에 빠지게 한다. 또한 잠시 동안 환상이

13) Irving Jacobson, "Family Dreams in *Death of a Salesman*," *American Literature* 47.2 (1975): 256.

사라졌을 때는 허무함을 느끼며 현실을 외면하려 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윌리는 힘들거나, 현재 상황을 피하고 싶을 때면 종종 자신이 어렸을 적에 기억하는 형 벤이나 기대감에 가득 찼던 비프의 어린 시절로의 환상에 빠진다. 이러한 환상이 사라진 후에는 정신과 마음이 혼란해지며 나아가 결국엔 정신분열증까지 일으키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프로이트(Freud)에 의하면 정신분열증은 환상에 뿌리를 둔 정신이상에 속하며, 자아가 실재하는 외부 세계와 관계를 맺지 않으려 하거나 관계를 맺지 못하게 되는 것을 가리킨다. 그런 상태의 환자는 외부 세계나 세계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과 의사소통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심지어 세계를 인식조차 못 하기도 한다.¹⁴⁾ 이처럼 윌리는 자기과시적인 성향으로 현실 속의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지 못했고, 동시에 현실을 회피하고자 현실과 환상 속을 방황한다. 결국엔 스스로가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기 힘든 상태까지 몰고 가게 된다. 다시 말하면, 윌리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으며 그는 자신만의 환상의 세계에 살고 현실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 한다. 그는 언제나 자신의 실패에 대한 변명을 하며 비프의 어린 시절에 도둑질을 포함한 모든 잘못된 행동을 다 받아줌으로써 비프의 인생까지 망쳐버렸다.¹⁵⁾

결과적으로, 윌리의 강압적인 자기중심적인 성격과 나약한 성격은 자신의 진실한 모습을 바라보기를 거부하며 지나치게 과거 시절에만 집착하고 계속해서 환상에 빠져들게 만든다. 하지만 그가 피난처로 삼은 과거시절의 회상은 오히려 그에게 현실과의 괴리감만 더 깊어지게 하며 그로 인해 소외감만 더욱 커질 뿐이다. 자신의 불필요한 고집과 자존심만을 내세워 정작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아야 할 때도 받지 못 하고 혼자서 방황한다. 바로 이러한 그의 성격적 결함이 자신을 소외시키게 되는 주요 원인이 되어 결국엔 자신의 인생을 파멸로 몰고 간 것이다.

14) 데이비드 스태포드 클라크(David Stafford-Clark), 『한권으로 읽는 프로이트』 최창호 옮김 (서울: 푸른숲, 2002), p. 173.

15) Eleanor Clark, *Old Glamour, New Gloom, Death of a Salesman: Text and criticism*, ed. Gerald Weals (New York: Penguin, 1996), p. 219.

2. 불안한 자아 형성

인간이 최초로 사회화를 경험하는 곳은 가족이며, 가족생활에서의 사회화를 통해 형성된 기질이 성인기에 경험하는 다른 사회제도에서의 사회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처럼 가족에서의 사회화는 유아기에 경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최초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인간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고 하겠다.¹⁶⁾ 윌리는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 형 벤(Ben), 그리고 데이브 싱글맨(Dave Singleman)으로부터 깊은 영향을 받는다.

윌리의 아버지는 윌리가 어렸을 때 집을 떠났기 때문에 어린 시절 부모의 모습만 기억하는 그에게 아버지는 신과 같은 존재이다. 아버지로부터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았다고보다는 형 벤을 통해 간접적으로 기억 속에 존재하는 아버지는 윌리에게 매우 중요한 인물이다. 윌리에게 아버지는 가족과 함께 대륙을 횡단하며 플루트를 만들어 파는 개척자이자 자급자족의 행상인으로 강인하며 어디를 가든지 환영을 받는 모습으로 기억한다.

벤: 아버지는 아주 멋지고 강한 분이셨어. 보스턴에서부터 모든 가족들을 마차에 태워 전 대륙을 횡단하셨어. 오하이오를 통과해 인디애나, 미시간, 일리노이, 그리고 모든 서부 도시도 거의 다 다니셨어. 도시에 도착하면, 중간에 만든 플루트를 팔았지. 아버지는 정말 훌륭한 발명가였지. 장비 하나로, 우리처럼 평생 걸려서 만들 것도 단 일주일이면 완성하셨어.

Ben: Father was a very great and a very wild-hearted man. We would start in Boston, and he'd toss the whole family into the wagon, and then he'd drive the team right across the country, through Ohio, and Indiana, Michigan, Illinois, and all the Western states. And we'd stop in the towns and sell the flutes that he'd made on the way. Great inventor, Father. With one gadget he made more in a week than a man like you could make in a lifetime.⁽³⁴⁾

윌리의 아버지는 수공업을 중시하던 개척시대에 화려한 손재주로 플루트를 만들어 서부 전역을 누비고 다니며 판매하는 자유스럽고, 거칠며, 원기가 넘치는 독

16) 조정문·장상희, 『가족사회학』 (경기: 아카넷, 2001), pp. 216-217.

립적인 행상인이다. 다시 말하면 그 모든 미국인 특색으로서의 야망과 아버지로서의 약점까지 소유한 영웅적 아버지의 모습이라 할 수 있다.¹⁷⁾ 윌리는 이러한 아버지의 모습을 닮으려고 노력한다. 도구 하나만으로도 마술처럼 물건들을 만들어내는 재주를 가진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상적이고 신과 같이 존재한다. 음악가이자 발명가, 훌륭한 장인의 재능을 지닌 아버지는 그에게 “떠돌아다니는 유태인이자, 동시에 미국 행상인으로서의 이미지(He is a combination Wandering Jew and Yankee peddler)”¹⁸⁾로 그려지고 있는 것이다. 윌리는 아버지의 손재주를 물려받아 집안의 천장이나 계단 등을 말끔하게 고치고 다듬으며, 정원을 가꾸는 데 흥미를 느끼며 목가적인 전원생활을 동경한다.

윌리: ...오늘 저녁, 집에 들어가는 길에 씨를 좀 사야겠어.

...

시골외곽에 조그마한 땅을 구해서 그곳에 채소를 기르고 닭 몇 마리도 키워야지.

Willy: ...on the way home tonight I' d like to buy some seeds.

...

..we' re gonna get a little place out in the country, and I' ll raisesome vegetables, a couple of chickens. (52-53)

아버지는 윌리가 어릴 적에 가족들을 남겨두고 떠나버렸다. 윌리에게 앞으로 살아가면서 그에게 삶에 대해 충고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줄 정신적인 지주인 아버지를 이미 어렸을 때 잃어버린 상태이다.

그는 아버지의 자리를 대신해서 자신에게 세상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 줄 존재를 찾게 되는데 그들이 바로 형 벤과 싱글맨이다. 만약 윌리가 어렸을 때 가정에서의 따뜻한 보살핌 아래 부모님과 자신의 앞날에 대해 상의하고 실천했다면 그가 삶을 살아가는 태도나 인생의 방향은 매우 달라졌을 것이다. 그리고 자신이 잘 하는 분야와 관심 있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 부모님과 진지한 대화를 통해서 자신의 진로 및 앞날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도 있었다. 자녀들을 어렸을 때부

17) W. David Sievers, *Freud on Broadway: A History of Psychoanalysis and the American Drama* (New York: Cooper Square Publishers, 1970), p. 391.

18) Neil Carson, *Arthur Miller* (London: The MacMillan Press, 1982), p. 50.

터 가까이서 지켜본 부모야말로 그들에게 적당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아버지를 일찍이 여윈 윌리는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함께 논의할 존재가 없는 가정환경에서 자란 것이다. 그런 그에게 시대에 맞는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성인으로 자라길 기대하기는 어렵다. 또한 아버지의 빈자리를 대신하고 동시에 그가 성공의 모델로 삼은 벤이나 싱글맨도 막상 윌리가 중대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직접적으로 나서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 아니었다. 또한 자신이 선택한 일에 대해 확신을 심어줄 믿을만한 사람이 없었다. 윌리는 한마디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올바른 자아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한 것이다.

윌리는 가정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했고, 특히 부자지간의 정을 쌓지 못했다는 데 아쉬움과 동시에 피해의식을 갖고 있다. 자신의 아버지의 부재에 대한 보상이라고 여기는 윌리는 아들들에게 지나친 애정과 관심을 갖고 자신이 성공하기 위해 중요시 여기는 인맥이나 매력에 대해 강조하며 자신을 대신해서 성공해줄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자식들이 성실하게 공부하기보다는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는 것을 더 중요시 여긴다. 심지어 도둑질까지 하는 자식들을 혼내기보다는 오히려 용기 있는 행동이라며 그들을 감싸는 행동을 보인다. 그러므로 윌리의 성공에 대한 왜곡된 가치관 때문에 그러한 모습을 보고 배운 자식들 역시 성인이 되어서도 안정된 자리를 잡지 못한 채 계속해서 방황하거나 그와 같은 방식으로 인생에서 성공하고자, 헛된 꿈을 꾸게 되는 악순환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윌리의 자아 형성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바로 형 벤이다. 윌리의 회상만을 통해 나타나는 벤은 가공적인 인물로, 실제로 무대에 나타나지는 않으며 다른 사람에게는 의식되지 않는, 유명과도 같은 존재이다. 또한 벤은 윌리에게는 성공의 모델이면서 동시에 아버지가 없는 윌리에게 아버지의 자리를 대신하는 정신적인 지주이다. 벤은 열일곱 살에 아버지를 찾으려 알래스카로 가려 했다가 생각지도 못 하게 가게 된 아프리카에서 다이아몬드 광산을 발견해 일확천금을 얻어 부자가 되었다. 이토록 뜻하지 않은 행운으로 벼락부자가 된 벤의 성공은 꾸준한 성실함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우연한 기회를 잡아 자수성가할 수 있었던 개발과 개척의 시대에나 가능한 일이다. 벤이 성공한 모습은 윌리에게 “성공의 화신(success incarnate)” (27)이고, “내가 만난 사람들 중 유일하게 답을 알고 있는 사람(the only man I ever met who knew the answer)” (31)이자

위대한 사람으로 존재한다. 벤은 아메리칸 드림의 성공 스토리에 힘입어 줄곧 윌리에게 가난에서 부를 이루는 영광을 보여주는 예시라 할 수 있다.¹⁹⁾

윌리는 벤의 성공을 보면서 자신도 형처럼 해낼 수 있다는 야망을 갖고 그를 삶의 롤모델로 삼는다. 윌리는 벤의 성공 비결을 찾고자 노력한다. 이에 대해 벤은 부를 얻기 위해서 반드시 정당한 방법만 써야하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무력도 가능한 사용하는 권모술수적인 가치관을 강조한다. 이는 비프와 장난하면서 그에게 건네는 대사에 잘 드러난다.

벤: 잘했어! (갑자기 비프에게 다가가 쓰러뜨리며, 우산의 끝을 비프의 눈을 향해 겨눈다.)

...

벤: (비프의 무릎을 치며) 낯선 사람과 정당한 방법으로 싸우면 이길 수 없어. 그렇게는 정글을 헤쳐 나갈 수 없어.

BEN: Good boy! (Suddenly comes in, trips Biff, and stands over him, the point of his umbrella poised over Biff's eye.)

...

BEN: (patting Biff's knee) Never fight fair with a stranger, boy, You'll never get out of the jungle that way. (34)

벤은 낯선 사람과 겨룰 땐 정정당당하게 싸우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하는 모습에서 그가 성공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방법도 가리지 않고 사용하는 개척 시대의 사람임을 알 수 있다. 벤은 이러한 불공정한 방법을 윌리와 그의 아들에게 가르치는데 “거기가면 두 주먹 불끈 쥐고 싸워서 한 재산 챙길 수 있어(Screw on your fists and you can fight for a fortune up there).” (64)라며 무조건 공격적으로 무엇에든지 도전하라고 한다. 하지만 이런 벤의 개척정신과 공격적인 성향은 낯선 미지의 세상으로 떠나는 19세기 미국사회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윌리가 살고 있는 현시대에서 보자면 시대착오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윌리가 “저도 자식들을 그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벤 형님, 강건하고 인기 좋고 다재다능하게요 (That's just the way I'm bringing them up. Ben-rugged, well liked, all-around).” (34)라고 답하며, 그는 벤의 성공 비결에 매혹되어 자신과 더불어

19) Dillingham, pp. 343-344.

자신의 아들들도 벤과 같이 억세고 공격적인 성향의 인물로 키우려고 한다. 하지만 윌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더 이상 억세고 공격적인 방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벤의 용기와 모험심, 무자비한 성공 수단엔 윌리는 상당부분 영향을 받은 윌리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불공정한 방법도 쓸 수 있다는 그릇된 가치관을 갖게 된다.

윌리는 아내 린다의 만류로 벤을 따라 알래스카로 가려고 했던 계획을 바꾸고 새로이 알게 된 세일즈맨 싱글맨을 따라 세일즈맨으로서의 성공의 꿈을 갖게 된다.

윌리: 형님, 제 말이 옳지요? 제가 옳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조언 감사히 여기겠습니다.

벤: 너의 문 앞에 새로운 대륙이 펼쳐져 있어. 밖으로 나가기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단다. 부자!(사라져버린다.)

윌리: 하지만 우리는 이곳에서 이를 거예요, 벤 형님. 알아들으셨어요? 우리는 이곳에서 해낼거라구요.

WILLY: Ben, am I right? Don't you think I'm right? I value your advice.

BEN: There's a new continent at your doorstep. William. You could walk out rich. Rich! (He is gone).

WILLY: We'll do it here, Ben! You hear me? We're gonna do it here! (66)

윌리는 현재 뉴잉글랜드 지방에 판로를 개척하고 있고, 또 자신의 인기와 매력을 지나치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알래스카에 가지 않더라도 충분히 자신이 있는 곳에서 성공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또한 윌리가 보기에 큰아들 비프는 이미 세 군대 대학에서 서로 데려가려고 할 정도로 유망한 미식축구 선수가 되어 있으므로 그의 앞날 또한 성공이 보장되었다고 믿고 있는 것이다.

윌리는 형 벤을 따라가지 않기로 했지만 그의 성공철학을 그대로 좇아 세일즈맨으로서 사업을 계속적으로 해 나간다. 형 벤이 “윌리, 정글은 어둡지만 다이아몬드로 가득 차 있지. 다이아몬드를 얻으려면 우선 정글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거야(The jungle is dark but full of diamond, Willy, ... One must go in to fetch a diamond out).” (107)라고 했던 말을 떠올리는 윌리를 보며 우리는 그가 벤의 가치관을 계속해서 추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벤의 모험심과 행운의

성공관을 믿는 윌리이지만, 정작 현실에서는 이를 실천하지 못한다. 이와 같이 불안정하고 혼란스러운 가치관으로 세일즈를 하기 때문에 윌리는 어려움을 겪고 현실사회에서 갈등을 초래하며 소외된다. 윌리는 특히 마음이 나약해지거나 누군가의 안내가 필요한 바로 그 순간에 벤을 떠올리지만, 벤은 아무런 해답을 주지 않는다.²⁰⁾

벤은 윌리가 자신의 선택에 대해 인정받고 싶어 하는 인물임과 동시에 아버지를 대신할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하는 인물이다. 젊은 시절에 세일즈맨으로서 제법 인정도 받았지만 물질만능주의가 가득한 사회에서 가차 없이 해고당한 윌리는 자꾸만 형 벤을 따라 알래스카로 가지 않은 것을 후회한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 벤에게 자신의 결정이 옳은 것이었는지에 대해 확인 받고 싶어 한다. 또한, 윌리는 비프에게 돈을 마련해주기 위한 보험금을 타기 위해 자살할 계획을 모두 세워놓고 그게 과연 최선인지에 대해 고민하는 장면에서도 벤과 상의한다. 이런 윌리에게 벤은 “너는 너 자신을 바보로 삼고 싶지 않을 거야. 보험회사는 증서의 금액대로 주지 않을지도 모르지(You don't want to make a fool of yourself. They might not honor the policy).” (100)라고 만류한다. 그러나 윌리가 비프의 애정을 확신했을 때 나타난 벤은 다시 그의 자살계획에 대해 자신의 말을 반복하여 완벽하다며 용기를 북돋워주고, 다이아몬드를 가져오려면 정글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며 윌리의 자살을 부추긴다. 이처럼 아버지를 대신하는 정신적 지주로서 윌리의 상상 속에 등장하는 벤을 통해서 윌리는 성공을 위해서는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용해야 한다는 그릇된 가치관을 배우게 된다.

윌리에게 영향을 준 과거의 결정적 인물은 싱글맨이다. 어린 시절 아버지 없이 보낸 윌리는 벤을 정신적 지주로 삼았지만 어느날 그에게 나타난 전설적인 세일즈맨 싱글맨은 그의 운명을 바꾸어놓는다. 싱글맨은 윌리의 새로운 성공모델로 호텔에 앉아 전화 한 통화만으로 계약을 따낼 만큼 능력 있는 뉴잉글랜드의 세일즈맨이다. 특히 그의 장례식 때에는 수백 명의 세일즈맨들과 구매자들이 참석하여 그의 죽음이 세일즈맨다운 죽음이라며 칭송하는 것을 보고 윌리는 그와 같은 세일즈맨이 되기로 결심한다.

20) Susan C. W. Abbotson, *Death of a Salesman, Critical Companion to Arthur Miller: A Literary Reference to His Life and Work* (New York: Facts On File, 2007), p. 142.

윌리: ... 파커 하우스에서 싱글맨 싱글맨이란 세일즈맨을 만났지. 그는 84세로 31개 주에 상품판로를 개척했어. 그 늙은이는 호텔 자기 방에서 녹색 벨벳 슬리퍼를 신고 있었지. 절대 잊을 수가 없어. 그리고는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바이어들에게 전화를 거는 것만으로도 생계를 꾸려 나가셨단 말이지. 그 모습을 보았을 때, 판매가 바로 남자가 할 수 있는 가장 멋진 직업이라 생각했어.

WILLY: ... When I met a salesman in the Parker House. His name was Dave Singleman. And he was eight-four years old, and he'd drummed merchandise in thirty-one states. And old Dave, he'd go up to his room, y'understand, put on his green velvet slippers- I'll never forget- and pick up his phone and call the buyers, and without ever leaving his room, at the age of eighty-four, he made his living. And when I saw that, I realized that selling was the greatest career a man could want. (60-61)

직업이나 진로를 선택하는 일은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과정으로 이 과정은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도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단계이다. 이처럼 중요한 시기에는 부모님의 조언이나 자신의 적성 및 소질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필요하다. 그러나 윌리는 일찍이 부모를 잃어 그의 앞날에 대해 진지하게 의논하고 조언을 구할 사람 없이 오직 자기 자신의 판단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 윌리는 아버지로부터 뛰어난 손재주를 물려받았지만, 그 당시 인기 있는 직업인 세일즈맨의 걸모습, 특히 그들이 누리는 부와 인기에 매료되어 즉흥적으로 세일즈맨을 자신의 직업으로 삼는다. 싱글맨의 장례식에 수백만 명의 조문객이 왔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인기를 얻는 것이 윌리에게는 성공의 척도였던 것이다. 실제로 자신이 무언가를 이룬 것을 중요시하기 보다는 남들에게 어떻게 보이는지가 더 중요한 윌리에게 직업 선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은 사람들로 부터 인기를 얻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싱글맨은 윌리가 직업을 선택하는 과정과 더불어 그의 가치관 및 삶의 방향성 에까지 큰 영향을 준다. 특히 인기와 인간관계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싱글맨의 성공신화를 가치 있게 여기는 그의 모습을 벤에게 하는 대사에서 엿 볼 수 있다.

윌리: 돈들이지 않아도, 대학교 세 군데에서나 비프에게 서로 와 달라고 난리에
요. 앞으로의 날들이 끝없이 펼쳐질 거 예요.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느냐가
아니라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굴 알고 얼굴에 미소 짓느냐 아니냐가 중요
하답니다. 인맥이예요! 인맥! ... 여기서는 사람들의 마음에만 들면 다이아
몬드를 벌어들일 수 있어요. (65)

WILLY: Without a penny to his name, three great universities are begging for
him, and from there the sky's the limit, because it's not what you do,
Ben. It's who you know and the smile on your face! It's contacts,
Ben, contacts! ... that a man can end with diamonds here on the
basis of being liked! (65)

윌리는 싱글맨을 통해 아버지와 벤과는 다른 또 가치관인 인기와 인맥을 쌓는
것의 중요성을 배우며 남들로부터 호감을 얻을 수 있는 인기와 개성만 있으면
그와 같이 성공할 수 있다는 환상에 빠진다. 성공에 이르는 길로 “개인의 매
력”을 마법처럼 믿는 윌리의 신념은 원인과 결과를 넘어 필요성을 가지게끔 한
다. 즉, 그는 성공은 어쩔 수 없이 적절한 미소, 최상의 인맥, 매력이 넘치고, 단
순한 인기뿐만 아니라, 최고의 인기를 얻는 사람이 이루는 것이라 여긴다.²¹⁾ 하
지만 싱글맨의 성공방식을 믿었던 윌리의 방식도 틀린 것만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그는 “1982년에는 주당 평균수입이 백칠십 달러였던 말이야!(I averaged a
hundred and seventy dollars a week in the year of 1982)!” (62) 라고 자랑할 만
큼 윌리는 자신의 실력을 발휘하여 뉴잉글랜드 지방에 세일즈 판로를 개척하며
세일즈맨으로서의 자부심을 느낀다. 윌리가 싱글맨을 통하여 받아들인 성공의 방
법은 남에게 호감을 줄 수 있는 매력적인 미소를 지을 줄 알고, 독특한 개성을
지닌 사람에게 행운의 여신이 찾아온다는 것이다. 이는 미국인의 일반적인 관념
이자 “미국인의 신화(American myth)”라 할 수 있다.²²⁾

세월이 흐르면서 동시에 세일즈맨으로서의 전성기를 누린 싱글맨의 세대도 끝
나고 산업화와 물질문명의 발달로 인한 물질만능주의 사회에서 구시대적인 인기

21) Gerald Weales, *Man and His Image, Arthur Miller: Death of a Salesman: Text and Criticism*,
ed. Gerald Weales (New York: Penguin Books, 1996), p. 356.

22) 허중, p. 76.

나 인맥을 중시하는 세일즈 방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시대가 변했음에도 아버지나 벤, 싱글맨이 살던 개척시대의 방식으로 성공을 하고자 했던 윌리의 생각은 시대착오적인 판단이다. 사회는 냉정하고 빠르게 변화하며 더 이상 인맥이나 인기만으로는 세일즈 업계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윌리는 여전히 무거운 샘플상자를 들고 다니며 세일즈 판로를 찾느라 오히려 육체적인 피로와 정신적인 좌절감만을 맛보게 된다. 이렇게 윌리는 아버지와 형 벤으로부터 받아들인 개척정신과 싱글맨의 성공요인인 인기를 통해서 물질적인 성공을 거두려고 한다. 이러한 방식 자체가 비효율적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밀어붙이는 윌리에 대해 평가한다면 윌리는 자신의 방식의 실패를 절대 인정하거나 배우려고 하지 않으며 끝까지 자신을 파괴하는 이념에 대한 열렬한 예찬자라 할 수 있다.²³⁾

계속해서 윌리는 급변하는 시대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 하고 과거 개척시대의 성공방식에만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며 “와그너 그 양반이 살아 있었으면, 지금쯤 내가 뉴욕 책임자로 일하고 있을 텐데! ... 그런데, 아들인 하워드는 뭘 몰라!(If old man Wagner was alive I'd a been in charge of New York now! ... But that boy of his, that Howard, he don't appreciate).” (4)라며 자신이 세일즈맨으로서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를 자신의 책임이 아닌 본인의 능력을 무시하는 회사의 탓으로 돌린다.

결과적으로 형 벤으로부터 받아들인 개척자적 모험정신과 싱글맨을 통해 받아들인 매력적인 세일즈맨이라는 두 가지 가치는 서로 함께 공존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구시대적 가치인 장인기질과 전원생활에 대한 갈망과, 세일즈맨으로서 성공하려는 방식 또한 서로 상반된다. 이처럼 아버지와 형 벤, 그리고 싱글맨으로부터 각기 상이한 가치관을 여과 없이 받아들인 윌리는 그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불안정한 자아를 형성한다.

23) Harold Clurman, *The Success Dream on the American Stage, Death of a Salesman: Text and Criticism*, ed. Gerald Weals (New York: Penguin Books, 1996). p. 214.

Ⅲ. 소외의 양상

1. 가족으로부터의 좌절과 절망

가정은 한 개인의 생존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사회 구성의 최소 단위로 인간 성장의 중요시기인 유아기 경험이 대부분 가정에서 이루어지므로 가족의 사회화 기능은 아주 중요하다.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개인은 가정의 영역 안에서 다른 가족들에게 위안을 받으며 구성원간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한다. 아울러 대다수의 개인은 이를 기반으로 사회 집단구성원으로서의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기초를 마련한다. 하지만 윌리에게 가정은 사회생활로 지친 그에게 편안한 안식처를 제공하는 장소가 아니라 또 다른 갈등과 소외가 발생하는 장소이다.

윌리는 어렸을 때 일찍이 아버지를 잃고, 이후 그의 인생의 조연자 역할을 해 줄 대상이 없는 상태에서 스스로 가치관을 형성하며 성장한다. 그가 성장함에 있어 정신적으로 버팀목이 될 아버지의 부재로 인해 윌리는 심리적으로 큰 상실감을 갖게 되고 그에 대한 보상 심리로 윌리는 두 아들 비프와 해피에게 집착하고 그들을 위해서 온갖 정성을 다 한다.

윌리는 장남 비프에게 관심과 애정을 쏟으며 자신이 이루지 못한 꿈을 비프가 대신 이루어줄 것이라 믿고 그의 삶에 지나치게 간섭하며 자신의 가치관을 따라 주길 강요한다. 그러나 윌리는 아버지로서 올바른 교육관과 가치관으로 자식들을 교육시키는 것이 아니라 현실과 환상을 구별하지 못한 채 과대망상 속에서 자식들을 가르친다. 어린 시절 비프는 리더십이 뛰어나 주위로부터 인기가 많았고 고교시절에는 유명 대학에서 그를 스카웃 할 정도로 이름을 날리던 미식축구 선수로 외모 또한 출중하여 장래가 촉망되던 인물이다. 비프의 시합 때면 경기장에서 그에 대한 관중들의 열광적인 환호는 인기와 매력만 있으면 성공 가능하다는 윌리의 허영심을 채워 주기에 충분한 이유가 된다.

윌리: 마치 젊은 신, 헤라클레스와 같은 - 태양빛이 비프 주위를 돌았어. 비프가 나를 보며 손 흔들던 거 기억나오? 세 개의 대학 대표들이 서 있던 운동장 오른쪽에서? 내가 바이어들을 데리고 갔는데, 우리 아들이 나올

때 함성소리가 - 로먼, 로먼, 로먼! 아무렴, 우리 애는 크게 될 놈이야.
그렇게 훌륭한 별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는 법이지.

WILLY: Like a young god. Hercules - something like that. And the sun, the sun all around him. Remember how he waved to me? Right up from the field, with the representative of three colleges standing by? And the buyers I brought, and the cheers when he came out - Loman, Loman, Loman! God Almighty, he'll be great yet. A star like that, magnificent, can never really fade away! (51)

장래가 촉망되는 비프는 힘들게 현실을 살아가는 윌리에게 유일한 희망이며, 자신의 못 다 이룬 꿈을 이뤄줄 소중한 존재이다. 하지만, 비프에 대한 지나친 기대감은 그에게 과장된 자아를 갖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 이러한 윌리의 모습은 비프가 탈의실에서 공을 훔쳤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모른 척 지나치는 장면에서 잘 나타난다. 남의 것을 훔친 행동에 대해서 다시는 그런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혼을 내는 것이 보통의 아버지의 모습이라면 윌리는 이처럼 잘못된 행동에 대해 관대하게 무시하며 합리화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는 비프에게 그릇된 가치관을 심어주게 된다.

비프: (화가 나서) 다시 갖다 놓을 거라구!

윌리: 물론이지, 정규 볼로 연습할거지? (비프에게) 코치가 아마도 너의 적극적인 태도를 칭찬 할 테지!

비프: 그럼요, 항상 저의 그럼 태도를 칭찬해 주시는걸요.

윌리: 너를 좋아하기 때문이지. 다른 사람이 공을 가지고 왔으면 난리가 났을 거야.

BIFF: (angrily) Well, I'm bringing it back!

WILLY: (stopping the incipient argument, to HAPPY) Sure, he's gotta practice with a regulation ball, doesn't he? (To Biff) Coach'll probably congratulate you on your initiative!

BIFF: Oh, he keeps congratulating my initiative all the time, Pop.

WILLY: That's because he likes you. If somebody else took that ball there'd be an uproar. (18)

아버지 윌리의 그릇된 교육관으로 인해 비프는 축구공부터 시작해 공사현장의

자재들까지 흠치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윌리는 이런 문제의 행동들에 대해 잘못을 지적하기 보다는 “위낙 겁 없는 놈(fearless characters)” (33)이라 어쩔 수 없다며 오히려 담력 있는 행동으로 치부해 버린다. 그로 인해 비프는 잘못된 행동들에 대해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게 된다.

부모가 자녀에게 행하는 적절한 통제는 애정 못지않게 아동기의 바람직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중요한 요인이다. 자녀를 거의 통제하지 않고 지나치게 허용하는 부모나, 심한 통제를 가하고 지나치게 엄격한 부모에게서는 모두 바람직한 자녀의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²⁴⁾ 잘못된 교육방식으로 비프는 수학 시험을 패스하지 못 해 대학 진학도 포기하고 도벽과 같은 그릇된 행실로 순탄치 않은 성장기를 보내게 된다. 그러는 와중에 윌리는 개인의 능력이나 성실성보다는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는 편이 성공을 위한 길이라 믿고 무엇을 하느냐보다는 누가 알아주느냐 하는 것을 더 중요시 여긴다. 즉, 그는 인기만 있으면 성공한다는 강한 신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실하게 공부하는 찰리의 아들 버나드(Bernard)는 인기도 없고 매력적이지 않아 성공하지 못할 거라 언급한다.

윌리: 내 말이 바로 그거야. 버나드는 시험 성적이 좀 나올지도 모르지만, 졸업 후 사회에 나오게 되면 아마 너희들이 그 자식보다 다섯 배는 앞서 나가고 있을 거야. 그러니, 너희는 그 멋진 아도니스처럼 만들어준 신께 감사해라. 사회생활하면서 잘 나가는 사람들은 항상 인기가 있단다. 인기만 있다면 걱정 없단다.

WILLY: That's just what I mean. Bernard can get the best marks in school, y'understand, but when he gets out in the business world, y'understand, you are going to be five times ahead of him. That's why I thank Almighty God you're both built like Adonises. Because the man who makes an appearance in the business world, the man who creates personal interest, is the man who gets ahead. Be liked and you will never want. You take me, for instance. (20-21)

윌리는 잘생긴 외모와 매력만 있으면 어딜 가든 모든 일이 잘 풀릴 것이라 강조하며, 오히려 자신이 맡은 바를 충실하게 해내는 찰리의 아들 버나드에게 “얼굴

24) 송명자, 『발달심리학』 (서울: 학지사, 2013), p. 410.

이 왜 저렇게 창백해(What an anemic!)” (20)라며 무시하며 공부는 잘 하지만 외모와 매력이 없는 친구라고 자신의 자식들 앞에서 그를 평가절하 한다. 이와 같이 윌리는 남을 알잡아보거나 비난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방어한다.²⁵⁾

다른 사람을 비하하는 윌리의 언행이 자식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그는 버나드의 지성보다는 비프의 아도니스 같은 인기와 매력이 사회에 나가면 성공할거라 확신한다. 그리고 비프가 면허증 없이 운전을 한다고 알려주는 장면에서도 “닥쳐! 여기서 나가(Shut up! Get outa here!)” (27)라고 버나드에게 큰 소리만 치며 신중하게 들으려 하지 않는다. 오히려 윌리는 낙제를 받을지도 모르는 비프에게 답을 알려주라며 버나드에게 부정행위를 하도록 부추긴다. 아내 린다가 비프의 거친 성격을 걱정할 때도 공부벌레가 되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하면서 린다의 말을 강하게 거부한다. 즉, 비프에 대한 지나친 기대감과 희망으로 진실을 제대로 바라보려 하지 않으며 윌리는 오히려 자신은 아무런 문제가 없고 자신의 교육방법 또한 잘못된 것이 없음을 확신한다.

윌리가 보스턴에 출장을 가 있을 때 비프는 그가 머무는 호텔로 찾아가 자신의 낙제 사실을 알리는 장면에서도 내면적으로 윌리의 잘못된 가치관이 나타난다. 비프가 수학 선생님인 번봄(Birnbaum)이 자신을 싫어하는 것은 자기가 선생님의 웃긴 모습을 따라했었기 때문이라고 할 때, 그를 혼내는 대신 오히려 같은 반 학생들이 좋아했는지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는다.

비프: 알겠어요! 아버지, 그런데 선생님이 저를 싫어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루는 수업에 늦게 들어오셨는데, 그 동안 저는 칠판 앞에서 그 선생님의 눈을 감고 입술만 움직이는 모습을 흉내 내고 있었어요.

윌리: (웃으며) 그랬단 말이나? 애들은 좋아하더냐?

비프: 친구들은 거의 웃겨 죽으려고 했어요!

BIFF: Yes, sir! See, the reason he hates me, Pop - one day he was late for class so I got up at the blackboard and imitated him. I crossed my eyes and talked with a lithp.

WILLY (laughing): You did? The kids like it?

BIFF: They nearly died laughing! (93)

25) Kenneth Thorpe Rowe, *A Theater in Your Head* (New York: FUNK and Wagnalls, 1967), p. 49.

즉, 인기만 얻으면 잘못된 행동일지라도 문제가 될 수 없다는 인식을 비프에게 심어주는 것은 결국에 자식을 도덕적으로 성숙한 인간으로 자라지 못하게 하는 그릇된 교육관이라고 할 수 있다. 이 호텔에서 비프는 윌리의 불륜장면을 목격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아버지에 대한 믿음을 잃게 되고 자신의 인생 또한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 계기가 된다.

윌리: 비프야, 그 여잔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외로웠단다, 너무 외로웠단다.

비프: 어머니 스타킹을 그 여자에게 주셨어요!

윌리: (비프를 잡으며) 말 좀 들어!

비프: 건들지 말라고요 - 거짓말쟁이!

WILLY: She's nothing to me, Biff. I was lonely, I was terribly lonely.

BIFF: You-you gave her Mama's stockings!(His tears break through and he rises to go)

WILLY: (grabbing for Biff) I gave you an order!

BIFF: Don't touch me, you-liar! (95)

어머니가 스타킹을 깎는 모습을 보고 화를 내던 아버지가 다른 여자에게 스타킹을 주었고, 불륜 사실을 직접 목격한 비프는 아버지에 대한 믿음과 존경심이 무너져 감정적으로 의존하고 있던 자신을 아버지로부터 분리하게 된다. 더 이상 아버지는 이제까지 의지해왔던 존재가 아닌 그저 불순한 인간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비프는 어지러운 아버지의 환상이 사라지는 트라우마를 겪는다. 자신의 아버지가 신이 아니라 바람을 피우는 한 인간이라는 것에 대해 충격 받은 비프의 깨져버린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의 환상은 윌리가 린다의 스타킹을 그 여자에게 준 사실에 기인한다.²⁶⁾

보스턴에서 아버지의 불륜장면을 목격한 비프는 아버지에 대한 기대감이 무너짐과 동시에 이 사건은 그의 기억 속에 남아 자신의 모든 것을 놓아버리는 계기가 된다. 더 이상 비프에게 아버지는 그의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신과 같은 위대한 존재가 아닌 그저 욕망으로 가득한 인간일 뿐인 것이다. 다시 말하면 비프에게 윌리는 모든 죄로부터 자신을 지켜줄 신적인 존재로, 심지어 수학과목의 낙제도 해결 해줄 수 있을 거라 여겨졌다. 적어도 비프에겐 윌리는 잉글랜드 세일즈

26) Sievers, p. 394.

맨의 신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일은 성욕 없는 신에 대한 환상으로 ... 비프는 신을 잃은 것이다.²⁷⁾ 이 사건 이후 혼란에 빠진 비프는 대학 진학도 포기하며 방황하고 한창 미래에 대한 희망찬 계획이 가득 차야 할 17세의 나이에 그는 아버지의 삶은 싸구려 인생이라 비난하면서 동시에 자신도 “1 달러(One dollar)” 짜리 인생으로 빠져버린다.

비프는 고등학교 졸업 후에 변변찮은 직업을 전전하며 결국 허송세월만 했음을 깨달은 그는 고향으로 돌아와 동생 해피와 함께 목장에서 가축을 키워볼 생각을 한다. 필요한 게 있으면 찾아오라던 옛 직장 상사인 올리버의 말을 그대로 믿고서 목장 운영에 필요한 돈을 빌리러 가지만 여섯 시간이나 기다려 만난 올리버는 비프를 전혀 알아보지 못한다. 실제로 올리버는 비프를 몰라본 게 아니라 그 동안의 비프가 했던 께씸한 행동들을 모두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러 못 본 체 지나쳐 버린 것이다. 그런 올리버의 모습에 당황한 비프는 자신도 모르게 책상위에 놓여있던 만년필을 훔친다. 비프는 올리버의 만년필을 훔쳐 나오면서 “내가 대체 이걸 왜 훔친 거지(What the hell am I grabbing this for)?” (105)라고 한탄함과 동시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잘못을 뉘우치게 되고 동시에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다.

비프는 아버지와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전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모르시겠어요(I’m no good, can’t you see what I am)?” (89)라며 처음으로 윌리에게 자신의 참모습을 털어 놓는다. 자신이 어느 한 군데 정착하지 못 하고 이처럼 방황하는 것은 윌리가 자신의 능력을 필요 이상으로 부추겼기 때문이라고 비난하며 동시에 아버지 역시 비현실적인 환상에서 벗어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라고 호소한다. 그러나 윌리는 끝까지 자존심을 내세우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비프: 아버지가 저를 잘 한다고만 하시니 제가 누구 밑에서 일 할 수 있겠어요,
대체 누구 잘못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

이젠 제발 제대로 좀 보세요. 전 당장에라도 사장이 되어야만 했어요. 이젠 그런 것들을 그만두겠어요!

27) Daniel E. Schneider, *Play of Dreams, Arthur Miller: Death of a Salesman: Text and Criticism*, ed. Gerald Weales (New York: Penguin Books, 1996), p. 253.

BIFF: I never got anywhere because you blew me so full of hot air I could never stand taking orders from anybody! That's whose fault it is!

...

It's goddam time you heard that! I had to be boss big shot in two weeks, and I'm through with it! (105)

비프는 자신을 이렇게 키운 아버지 윌리를 원망한다. 그러나 결국엔 자신의 탓으로 깨닫고, 현실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며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 비프는 자신은 물론 아버지의 인생도 싸구려 인생이라고 푸념하며(Pop, I'm a dime a dozen, and so are you).(105) 윌리에게 현실을 인정하라고 애원한다. 윌리는 “난 싸구려 인생이 아니야! 난 윌리 로먼이고, 넌 비프 로먼이라구!(I am not a dime a dozen! I am Willy Loman and you are Biff Loman!)” (105)라고 외치며 현실을 인정하려 들지 않으며 끝까지 허세를 부린다. 그 이유는 자신과 자신의 아들은 반드시 잘 나가야하며 여러 사람들 중에서도 특출해야 한다고 믿고 있으며, 이러한 윌리의 모든 자존심과 정체성은 바로 자신들이 다른 이들보다 훨씬 낫다고 믿는 데에서 오기 때문이다. 오히려 비프가 윌리를 향해 원망하며 흘리는 눈물을 자신을 너무 사랑해서 흘리는 눈물이라 여기며 그 동안 비프에 대해 실망했던 마음을 다시 기대감으로 바꾼다. 이처럼 윌리는 그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그는 비프가 원망스러워하며 흘리는 눈물을 자신에 대한 사랑의 증거로 여기며 자신의 방식이 옳았다는 것으로 확신한다.²⁸⁾

윌리는 이처럼 온갖 기대와 애정으로 키운 비프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부자 관계에서 소외되지만 형 벤으로부터 “완벽한 계획(A perfect proposition)” (108)의 동의를 얻어낸다. 즉 윌리는 그의 죽음의 대가로 받게 되는 2만 달러의 보험금만 있으면 자신이 그토록 열망해온 꿈들을 아들이 실현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그는 결코 인생에 실패하지 않았다는 아버지의 정체성과 권위를 증명하고자 형 벤이 다이아몬드가 번쩍이는 정글로 뛰어 들었듯이, 그렇게 죽음 속으로 뛰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²⁹⁾

28) Weales, p. 357.

29) 사공일, 「『아메리칸 뷰티』와 『세일즈맨의 죽음』에서 아버지의 죽음 비교」, 『국제지역학논총』 3 (2009): 80.

둘째 아들 해피(Happy)는 비프와는 다른 방식으로 방황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는 마치 윌리의 허세와 허풍이 극대화된 모습이다. 가식이 심한 해피는 자신의 결점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남의 탓으로만 돌리는 인물이다. 해피는 자신의 아버지와 결코 다르지 않고 윌리의 가르침의 결과가 보이는 듯하다. 비프가 아버지의 물질만능주의에 대한 반발로 의도적으로 실패자가 되었다고 어느 정도 볼 수 있는 반면에, 해피는 아버지의 생각에 대한 잘못을 알지조차 못하고 그들 자신의 삶을 살고 있다.³⁰⁾

해피는 아버지 윌리처럼 잘못된 환상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이 누군지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으로 자기 자신을 실제보다 훨씬 잘난 사람으로 착각한다. 그는 판매주임 직책과 관련해서도 그 직책은 그가 얻고 싶어 하면서도 정작 그 자리에 자신이 오르지 못하는 것은 판매주임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한다. 또한 상사의 약혼자를 유혹하고, 주저함 없이 뇌물을 받는 등의 그릇된 행동을 보여준 해피는 결국 사회 부적응자가 된다. 또한 해피가 아버지 윌리를 소외시키는 모습은 세 부자가 식사를 하기로 약속한 장소인 프랭크 식당(Frank's Chop House)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여기서 해피는 아버지 윌리가 눈앞에 있는데도 처음 보는 여자를 유혹하는데 관심을 쏟고, 윌리가 비프의 잘못을 탓하는 순간에도 계속해서 여자들하고만 어울린다. 결국에는 비프와 해피는 아버지 윌리를 식당에 혼자 두고 떠나 버린다. 이러한 모습은 윌리가 자식들로부터 받는 좌절과 절망의 극치를 보여주는 장면이다.

레타: 아버지께 말씀 안 드릴건가요-

해피: 됐어, 저 분은 우리 아버지가 아니고, 그냥 아는 사람일뿐이야. 자, 우리 형 비프를 따라가서 신나게 놀자고! 스탠리, 계산서 줘! 여기, 스탠리!

LETTA: Don't you want to tell your father-

HAPPY: No, that's not my father. He's just a guy. Come on, we'll catch Biff, and, honey, we're going to paint this town! Stanley, where's the check! Hey, Stanley! (91)

30) Dusenbury, *The Theme of Loneliness in Modern American Drama* (Gainesville: Univ. of Florida Press, 1960), p. 24.

이처럼 해피는 자신의 아버지를 무시할 정도로 여자에게만 관심을 갖는다. 비프가 아버지를 잘 돌보라고 부탁하지만 해피는 정작 자신은 아버지에게 잘 하고 있다며 그런 비프에게 “누가 먼저 집을 떠났는데? 도망친 건 대체 누구냐고 (Who goes away? who runs off and-)” (90)라며 오히려 비프를 비난한다.

윌리 역시 비프에게는 지나칠 정도로 관심과 애정을 기울이면서 정작 해피와는 진정한 대화마저 나누지 않을 정도로 무심하게 지내 온 것이 사실이다.

해피: 아버지 은퇴 후에 편하게 사실 수 있게 해드릴게요.

윌리: 달랑 주급 70달러로 나를 모시고 산다고? 여자만 찾고, 자동차에 아파트 월세까지 내야하는 니가, 감히 날 먹여 살린다고!

HAPPY: Pop, I told you I'm gonna retire you for life.

WILLY: You'll retire me for life on seventy goddam dollars a week? And your woman and your car and your apartment, and you'll retire me for life! Christi's sake, I couldn't get past Yonkers today! (28)

아버지 윌리 자신을 은퇴 후 편히 모시겠다는 해피의 말에도 오히려 면박을 주며 무시하는 모습을 보인다. 결국 윌리는 그릇된 교육관으로는 비프를, 무관심으로는 해피와의 정상적인 자식과의 관계를 파괴함으로써 가족으로부터 좌절과 절망의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다.

아내 린다와의 관계에서도 역시 소외당하는 윌리를 살펴볼 수 있다. 린다의 모습은 순종적이며 헌신적인 전형적인 어머니상으로 언제나 남편을 옹호하는 인물이다. 표면적으로 린다는 가장 긍정적인 인물이자 헌신적인 아내인 듯이 보인다. 피상적으로 긍정적인 듯한 모습 자체가 하나의 환상으로서의 사실상, 이들 부부 사이에는 “끔찍할 정도의 상호 무지(terrible mutual ignorance)”가 가로 놓여있음이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다.³¹⁾ 그녀는 윌리가 능력 있는 세일즈맨이라 믿으며 “윌리, 여보, 당신은 세상에서 최고로 멋진 남자예요. 나에게서는 당신이 최고예요(Willy, darling, you're the handsomest man in the world-. To me you are).” (24)라고 말하며 윌리를 계속해서 착각 속에 살게 만든다. 자신의 무능력함을 자각할 수 없도록 옆에서 부추겨 윌리의 상황은 더욱 혼란스러워진다. 윌리의 깊은

31) 조은영, p. 444.

내면을 이해하지 못하는 린다는 그가 현실을 제대로 바라볼 수 없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녀 자신의 현실안주를 지향하는 이기적인 욕망으로 남편에 대한 맹목적인 사랑과 헌신을 보여준 반면 인생의 동반자로서 남편에 대한 진정한 충고와 이해는 회피한다. 만일 그녀가 남편을 정확하고 적나라하게 이해할 경우 그녀는 거짓말쟁이, 사기꾼, 그리고 허풍쟁이이며 부정한 남편과 함께 살고 있는 것이 된다. 린다의 태도는 결국 윌리가 자신의 무능함과 나약함을 자각할 수 있는 순간에도 이를 무시하고 계속 환상에 빠져 살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³²⁾ 다시 말해 린다는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남편의 파멸에 일조한 것은 틀림없으며, 이는 그녀 역시 환상의 노예이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³³⁾

린다는 윌리가 성공을 위해 알래스카로 가려고 할 때도 지금의 현실에 만족하도록 설득하며 불확실한 미래보다 현실의 안정을 권유한다. 이러한 린다의 주장에 설득당한 윌리는 자신의 가문에 대한 긍지를 갖고 다시 한 번 로먼가의 우수성을 빛내겠다고 다짐한다.

린다: (벤에게 화를 내며) 그이에게 쓸데없는 것들 말하지 마시라고요! 우린 바로 여기, 지금 여기서도 충분히 행복하다고요.

윌리: 그럼 그럼, 물론이지. 형님, 저는 회사를 위해 무언가를 하고 있어요. 남자가 뭔가를 하고 있다면 옳은 길을 가고 있다는 게 아닌가요?

LINDA: (frightened of BEN and angry at him) Don't say those things to him! Enough to be happy right here, right now.

WILLY: Sure, sure. I am building something with his firm. Ben, and if a man is building something he must be on the right track, mustn't he?
(64-65)

이후, 윌리는 넓은 미지의 세계를 개척할 수 있었던 벤과 함께 알래스카행을 자꾸만 떠올리며 가지 못 하게 한 린다에게 적대감을 갖는다. 린다는 현실에 안주하려는 성향으로 윌리가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고 자신의 방식으로만 이해하기 때문에 부부 사이의 진실 된 대화가 불가능하다. 린다에 대한 적대감은 부부간의 대화에서도 잘 나타난다. 비프와 해피가 새로운 사

32) 조은영, p. 445.

33) Dillingham, p. 344.

업을 계획하는 자리에서 윌리는 린다의 대화 참여를 반대하며 자식들 앞에서 소리까지 지른다. 린다 역시 남편의 힘든 상황에 대해 이미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그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나 함께 상황을 헤쳐 나가려는 의지 없이 방관자적 입장만을 취한다. 그러면서 비프와 해피에게는 아버지에 대한 동정심과 관심을 호소하며, 윌리의 어려움과 외로움에 대한 이해해 줄 것을 호소한다.

윌리는 진실 되지 않은 관계에서 린다와의 소외감을 느껴 보스턴으로 출장을 갔을 때 프랜시스(Francis)와 불륜관계를 갖게 된다. 이러한 과거의 사건으로 인해 서로간의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 윌리는 린다에게 자신은 더 이상 세일즈맨으로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며 절망한다. 그러나 린다는 세상에서 가장 멋진 사람이라고 부추기며 윌리가 처한 현실을 이해하려고 하기 보단 다른 방향으로 화제를 돌려 그가 계속해서 환상에 머물도록 한다. 린다는 세일즈맨으로서 자신감을 잃은 윌리에게 하워드 사장에게 가서 뉴욕 본사에서 일 하도록 간청하라고 요구한다. 이러한 린다의 모습은 겉으로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결국엔 윌리가 자신의 주체성을 인식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방해꾼의 역할을 하며 윌리를 더욱 더 허황된 꿈속으로 떠밀어버린다. 그러나 남편에 대한 부족한 이해와 그를 계속해서 헛된 망상 속에 머물도록 한 무관심적인 태도보다 그녀의 가장 큰 잘못이라 볼 수 있는 점은 윌리가 자살을 시도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에 대해 한마디 언급 없이 소극적인 태도를 취했다는 점이다.

린다: 끝에 뭔가가 달려있었는데, 금방 알아챘지. 틀림없이 히터 바닥의 가스 파이프에 새로운 꼭지를 갈아 끼운 것이었어.

해피: (화를 내며) 어리석은 짓을...

비프: 그래서 그걸 없애셨어요?

린다: 민망해서 말이다. 내가 어찌 아버지께 말하겠니? 나는 매일 내려가서 그 작은 고무파이프를 치워버린단다.

LINDA: There's a little attachment on the end of it. I knew right away. And sure enough, on the bottom of the water heater there's a new little nipple on the gas pipe.

HAPPY: (angrily) That-jerk.

BIFF: Did you have it taken off?

LINDA: I' m-I' m ashamed to. How can I mention it to him? Everyday I go down and take away that little rubber pipe. (43)

린다는 사전에 윌리의 자살을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으로 대처하여 결국 윌리를 자살에 이르게 한다. 그 결과 아들들에게 아버지의 자살시도를 알려주는 것 말고는 윌리의 고뇌를 끝까지 이해하지 못 함으로써 비극적 결말을 맞는다. 윌리의 장례식 장면에서 린다는 “정말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35년 만에 처음으로 빛 다 갚고 홀가분해진 지금에서야 말이에요(I can't understand it. At this time especially, First time in thirty five years we were just about free and clear).” (110)라는 대사에서 그녀는 윌리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순종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편안함을 추구하고자 윌리를 대했으며 진정으로 서로간의 소통이 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윌리는 비프와 해피에게서 기대했던 모든 희망과 기대가 무너짐으로써 좌절과 소외를 느끼게 되고 아내인 린다에게서도 인생의 동반자로서의 역할이 아닌 단지 안정적인 현실을 만족시켜 주기 위한 희생양으로 존재한 셈이다. 린다는 심각하게 불만족스러운 인물로 거의 모든 남편 윌리의 현실적 대안을 제시해 주지 못 하고 있다. 린다의 사랑은 왜곡된 가치관으로부터 윌리를 구해 줄 거라는 어떠한 암시도 없다.³⁴⁾ 부부간의 진실한 소통이 부재한 상황에서 윌리는 점차 좌절과 절망의 고통을 느끼며 죽음의 결말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

34) C. W. E. Bigsby, *Confrontation and Commitment: A Study of Contemporary American Drama* (Columbia: Univ. of Missouri Press, 1967), p. 35.

2. 사회로부터의 고립

개인의 삶은 사회와 불가분하며 또한 그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개인은 사회라는 물속에 있는 물고기처럼 사회라는 맥락을 벗어나서는 살 수 없다. 그래서 사회의 현실과 인간의 이상 사이에 조화가 이루어지지 못하면 인간은 그 사이에서 갈등과 고뇌를 겪으며 소외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한다. 밀러는 사회가 점차 산업화로 인해 공동이라는 개념이 축소되고 사람들 사이의 유대관계가 약해지면서 나타나는 모습을 소외의 문제로 제시하고 있다. 소외의 모습은 산업화된 사회에서 나타나는 비극으로 인간이 개성을 잃어버리고 점점 생산성을 위한 하나의 단위로 전락하게 되고, 동시에 인간의 가치가 사라지게 된 것에서부터 비롯된다.

세일즈맨이라는 직업은 대량생산이 가능한 시대의 도래와 함께 판매 경쟁이 심해지고 이에 따라 세일즈맨의 수도 증가하게 된다. 기업은 이들을 하나의 물건 또는 나사와 같은 부속품처럼 취급하여 쓸모 있는 가치를 지닐 때만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인정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쉽게 버리거나 바꿔버린다. 윌리가 이러한 자본주의 사회로부터 소외되는 과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사장 하워드이다. 그는 이 작품에서 냉정하고 비정한 자본주의를 상징하는 인물로 나이 들고 더 이상의 효용가치가 없는 세일즈맨을 그가 취급하는 방식이 곧 한 기업이, 사회가 개인을 다루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윌리가 사회로부터의 고립되는 모습을 먼저 친구 찰리와 관계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 작품에서 윌리의 친구로 등장하는 인물은 찰리 한 명뿐으로 밀러는 자신의 희곡 모임집에서 찰리라는 인물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직접 설명하고 있다.

세일즈맨의 죽음에 등장하는 가장 정상인 인물은 자본가 찰리로 그의 목표는 윌리의 그것과는 다르지 않다. 그 둘 사이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찰리는 광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하지만 동등하게 그는 윌리가 끝까지 쫓는 영혼의 황홀감 같은 광분을 하지 않고 사는 방법을 알고 있다. 윌리의 아들들이 불행한 것과는 반대로 찰리의 아들 버나드는 성실히 자신의 학업을 마쳐 가치 있는 목표를 이룬다.

The most decent man in Death of Salesman is a capitalist(Charley) whose aims are not different from Willy Loman's. The great different between them is

that Charley is not a fanatic. Equally, however, he has learned how to live without that frenzy, that ecstasy of spirit with Willy's chase to his end. And even as Willy's sons are unhappy men, Charley's boy, Bernard, works hard, attends to his studies, and attains a worthwhile objective.³⁵⁾

이러한 찰리는 ‘인생 한방’을 꿈꾸는 윌리와는 다르게 눈앞에 닥친 삶을 성실함으로 임해 성공을 이루는 건전한 성공모델로 볼 수 있다. 윌리의 유일한 친구인 그는 윌리의 힘든 처지를 이해하고 돕기 위해 생활비를 위한 돈도 빌려주고 회사로부터 해고당한 것을 알게 되자 일자리까지 제공하는 등 계속해서 우호적인 태도를 보인다. 그러나 윌리는 찰리에게 “망할 그 일자리는 필요 없어(I don't want your goddam job!)” (75)라고 말하며 그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한다. 직장을 잃은 윌리의 처지로 봐서는 당장에라도 찰리의 일자리 제안을 감사히 여겨야 하지만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은 바로 자신이 찰리보다 못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동시에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다. “찰리, 난 자네 밑에서 일할 수 없네(I - I just can't work for you, Charley).” (75)라며 끝까지 자존심을 내세운다. 이처럼 서로의 다른 가치관의 차이로 인해 둘 사이에서 소외를 느끼는 윌리는 찰리와의 제대로 된 대화를 이어나가지 못하고 자꾸만 환상에 빠져드는 모습을 보여준다.

찰리: 오늘 꽤 잘 하는데.

벤: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니?

윌리: 아니요, 어머니는 오래전에 돌아가셨어요.

...

벤: 아버지 소식 들은 거 없니?

윌리: 무슨 말이야, 누가 죽었다고?

찰리: (판돈을 쓸어 모으며) 이 친구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가?

CHARLEY: Pretty sharp tonight.

BEN: Is Mother living with you?

WILLY: No, she died a long time ago.

...

BEN: Heard anything from Father, have you?

WILLY: what do you mean, who died?

35) Miller, *Arthur Miller: Collected Plays* (New York: The Viking Press, 1976), p. 150.

CHARLEY: (taking a pot) What're you talkin' about? (31)

찰리는 힘들어 하는 윌리를 위로하기 위해 늦은 밤에도 찾아와 함께 카드 게임을 하지만, 윌리는 카드게임 도중에 자꾸만 회상에 잠겨 대화에 집중하지 못 한다. 이 회상 속에서는 실재하지 않는 형 벤과 대화하느라 정작 자신 앞에 있는 친구와의 카드게임에는 집중하지 못해 자꾸만 대화가 엇나가 결국엔 언쟁으로 이 장면은 끝이 난다. 이처럼 둘은 아주 오랜 친구로 가까운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함께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둘 사이에서 윌리는 소외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윌리는 자식 교육에 있어서도 친구 찰리로부터 소외감을 느낀다. 윌리의 왜곡된 성공에 대한 집착과 아들에 대한 지나친 기대감으로 비프는 올바른 가치관을 갖고 성장하지 못 하고 성인이 돼서도 일정한 일자리 없이 계속해서 방황하는 처지이다. 해피 역시 허풍이 심하고 여성 편력이 심한 성인의 모습이다. 반면 찰리는 그의 아들 버나드를 자신의 인생에 대해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교육하여 유능한 법률가로 키워낸다. 어렸을 적엔 버나드를 무시했던 윌리는 훌륭하게 성장한 그를 우연히 마주쳤을 때 처음엔 비프도 큰 사업을 하고 있다며 거짓말을 한다. 그러나 이내 곧 버나드에게 “성공의 비결이 뭐냐, 넌 어떻게 한 거지? 왜 비프는 영영 따라갈 수 없는 거지 (What's the secret? how did you? Why didn't he ever catch on)?” (71)라며 오히려 아들의 친구를 부러워하는 처지가 된 것이다. 이처럼 비프와 버나드의 비교에서 윌리는 더욱 좌절과 소외감을 느끼게 되었고 비프가 버나드를 앞서 나갈 수 있는 최종적인 방안으로 죽음의 대가를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윌리가 사회적 고립으로부터 느끼는 소외의식은 자본주의 사회로 상징되는 하워드와의 관계에서도 나타난다. 윌리는 34년간 일 해온 회사에 더 이상은 나이가 들어 먼 거리 지방 출장은 힘들다며 내근직을 부탁하기 위해 사장인 하워드를 찾아간다. 하지만 하워드는 윌리의 이야기에는 귀 기울이지도 않은 채 자신이 구입한 최신 녹음기에만 관심을 보인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하워드로 상징되는 자본주의의 시각에선 회사를 위해 평생 일 해 왔지만 지금은 효용가치가 사라진 윌리보다는 최신의 기능 좋은 녹음기의 가치가 훨씬 높다는 것이다. 즉, 하워드

의 입장에서는 150달러를 주고 녹음기와 같은 최신 기계를 살 의향은 있는 반면 주급 40달러의 월리를 고용할 의사는 없는 것이다. 이는 인간의 가치가 한낱 기계보다 하락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밀리는 다음과 같이 현시대를 인간이 기계를 위한 시대라고 직접 지적한 바 있다.

요컨대, 개개인의 절대적 가치는 부차적인 것으로 여겨진다. 즉, 인간의 가치는 효율적인 생산의 필요성보다 못하게 여겨진다. 결국엔 우리 인간은 기계를 위해 일하게 된 것이다. 기계는 멈추거나 더러운 상태 또는 구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오직 인간만이 망가지고 멈추며 더러워져 홀로 남게 된다. 나는 희생자에 대한 우리의 연민이 섞여 있다고 여긴다.

In short, the absolute value of the individual human being is believed in only as a secondary value; it stands well below the needs of efficient production. We have finally come to serve the machine. The machine must not be stopped, marred, left dirty, or outmoded. Only men can be left marred, stopped, dirty, and alone. Our pity for the victim is mixed, I think.³⁶⁾

월리와 하워드의 관계를 살펴보면 그들은 단순히 인간적인 관계로 맺어진 사이가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과 자본주의 사회와의 관계임과 동시에 일반적인 사람과 산업화된 사회와의 관계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월리는 거대 기업을 위해 희생하는 하나의 부속품일 뿐이다. 이제는 효용가치를 상실하여 이에 대해 좌절하는 평범한 인간이며 또한 사회가 낳은 희생자에 불과하다. 월리 또한 자아실현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자신의 직업으로부터도 소외되어 있는 실정이다. 프리츠 파펜하임(Fritz Pappenheim)은 이 현상을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기술시대에 피부어지는 이러한 비난을 아무리 배격하더라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의 노동이 아주 높은 정도까지 비인격화 되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 우리들의 대부분이 노동에서 발견하는 만족은 우리가 수행해야 할 직업적인 활동에 고유한 것은 아니다. 이러한 만족은 주로 소비된 시간에 맞먹게 우리들에게 지급되는 월급봉투에서 발견된다. 따라서 노동은 노동을 위해서가 아니라 외부적인 목적을 위해 수행된다.³⁷⁾

36) Miller, *On Social Plays*, Arthur Miller. ed. Robert A. Martin (New York: Da Capo, 1996), p. 60.

37) 프리츠 파펜하임, 『현대인의 소외』 황문수 역자 (서울: 문예출판사, 1994), p. 75.

냉정한 사회에서 윌리는 소외감을 느끼며 지난날들을 그리워한다. 이러한 모습은 비인간적인 사회 분위기에 희생되는 무기력한 현대인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 인간의 편리함과 행복을 위한 산업화는 마침내 인간성 상실이라는 부작용을 낳았고, 보통사람들에게 소외와 상처를 남긴다. 이러한 소외의 분위기는 윌리와 그의 주변 환경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 작품의 첫 지문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정면에 세일즈맨의 집이 있고, 높이 솟아오른 건물들이 그 집을 전부 둘러싸고 있다. 파란 하늘빛이 집과 무대 앞쪽을 비추고 있다. 무대 나머지 부분은 화난 듯 오랜 지색으로 타오른다. 조명이 점차 밝아지면서, 조그맣고 부서질 듯한 집 주변으로는 견고한 아파트들이 보인다. 이 집에서는 현실에서 스며드는 꿈결 같은 분위기가 짙게 감돈다.

Before us is the Salesman's house. We are aware of towering, angular shapes behind it, surrounding it on all sides. Only the blue light of the sky falls upon the house and forestage; the surrounding area shows an angry glow of orange. As more light appears, we see a solid vault of apartment houses around the small, fragile-seeming home. An air of the dream clings to the place, a dream rising out of reality. (1)

풀과 나무들이 노래하듯 부드러운 플루트 음악이 들리며 동시에 조명이 밝아지면서 거대한 아파트의 지붕들과 곧 무너질 것 같은 집 한 채의 모습이 드러난다. 이 대조를 통하여 차가운 콘크리트 문명이 대표하는 물질주의적 산업사회라는 현실과 시대착오적인 개척시대의 가치관의 대립, 즉 현실과 꿈의 대립을 보여주고 있다.³⁸⁾ 윌리가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마다 들려오는 플루트 음악은 그의 아버지와 목가적 생활에 대한 동경, 잃어버린 꿈을 상기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그 음악은 단순히 윌리를 현실이 아닌 환상에 빠지게만 할뿐 실제로는 어떠한 역할도 해주지 못 한다. 현실은 거대한 아파트에 둘러싸여 삭막할 뿐이다. 윌리는 바쁜 도시에 살면서도 전원생활을 동경하는 모습에서 그의 낭만적이고 목가적인 기질을 찾아 볼 수 있다. 또한 그의 훌륭한 손재주와 함께 타고난 기질을 고려해보면, 그는 자신의 손으로 직접 무언가를 만들며 소박하게 살고 싶어

38) 김정수, 『Arthur Miller의 작품세계』 (부산: 부산외국어대학교 출판부, 2004), p. 55.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바쁜 도시생활에서 그가 바라는 전원생활은 애초에 불가능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윌리는 자신의 직업인 세일즈맨을 찬양하지만 그에게 있어서 세일즈맨의 의의는 단지 물질적인 것만이 유일한 의미이며, 일 자체에는 아무런 가치를 두지 않는다. 윌리뿐만 아니라 현대인들은 모두 자신의 권리를 획득하려고 투쟁하면서 함께 물질적인 성공도 추구한다. 이로 인해, 윌리는 사회로부터 점차 고립되며 동시에 경쟁적이고 비정한 자본주의 사회에 적응하지 못해 결국엔 정신적 불안감과 소외의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IV. 결론

『세일즈맨의 죽음』은 한 평범한 세일즈맨의 비극적인 삶과 죽음에 이르는 과정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며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인간소외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물질적인 성공을 위한 개인의 그릇된 가치관으로 인해 파멸하는 한 개인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 작품에서는 냉정한 현대사회 안에서 기계를 사람보다 더 중시하는 자본주의 체제를 비판한다. 또한, 사회 내에 퍼져 있는 소외의 문제를 다루면서 소외의 개인적인 문제와 더불어 가족들과의 관계 그리고 사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의 중요성과 가치관을 강조한다. 소외는 빠르게 변해버린 사회가 낳은 부작용으로 성공한 자는 안정된 생활과 행복을 누릴 수 있지만 패배한 자는 그 안에서 상대적 좌절감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사회 환경 안에서 사람들은 소외감을 겪고 있으며 동시에 인간의 소외조차 외면당하고 무감각해지는 실정이다. 이러한 소외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실의 변화를 직시하며 바람직한 가치관으로 자신을 살피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안에서 개인은 다른 사람들과 더 나아가서는 사회와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으며 그 관계 속에서 자신의 역할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 또한 바람직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며 동시에 서로에 대해 이해하며 받아들일 때 진정한 자아가 완성되고 더불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 윌리는 인기와 인맥만이 최고라는 그릇된 가치관으로 성공을 하고자 했으며 그러한 자신의 주장을 주변 사람들에게 강요한다. 그의 물질적인 성공에 대한 집착과 자식의 성공에 대한 기대와 좌절, 변해버린 현실에서 느끼는 무력감은 각자가 느끼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현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라고 할 수 있다. 윌리가 사회와 가정 내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었던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자신의 적성과 소질을 간과한 채 물질적인 성공만을 위해 자신과 맞지 않는 직업을 선택한 데 있다. 직업은 단지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니라 개인의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수단임과 동시에 삶을 살아가는 과정임을 무시한 윌리는 아버지 살던 목가적인 삶을 동경함과 동시에 산업화된 사회에서 벤과 싱글맨이

이런 물질적인 성공을 원한다. 하지만 시대착오적인 상반된 두 꿈이 실현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그는 늘 허황된 꿈을 좇으며 현실에 적응하지 못한다. 그리고 예전과는 달리 도시화로 인해 변해버린 주변 환경은 윌리가 편히 쉴 공간마저 삭막하게 만들어버리고 34년간 일 해온 회사로부터는 더 이상 쓸모없게 되어 해고당하고, 자신의 기대와 희망이었던 자식들마저 그에게 절망감만 안겨준다.

윌리의 성공의 꿈이 좌절되고 자식과의 관계에서도 회복이 불가능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윌리는 이대로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더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여긴다. 죽음을 통해 윌리는 비프에게 보험금을 남겨줌으로써 자신의 못 다한 성공의 꿈을 비프가 대신 이뤄주길 바란다. 동시에 보스턴 사건 이후 추락한 아버지의 권위를 회복하여 자신의 인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자 한다. 자식과의 소외된 관계에서 죽음은 자식에게 도움을 주는 방편이라고는 하지만 결국엔 자신의 일방적인 선택이었고, 또한 자신이 처한 현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강한 자존심과 쓸데없는 허세와 같은 성격적 결함으로 윌리 자신 스스로가 자초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윌리의 죽음은 자식을 위한 맹목적인 사랑의 방식임과 동시에 비프의 앞날을 위해 자신의 보험금으로 성공의 기틀을 마련하기 바라는 아버지로서의 삶을 정당화시키는 잘못된 방식이다. 결과적으로 윌리는 자식들에게 그릇된 가치관을 주입시켜 그들의 잘못을 남성다움으로 치부해버려 실패한 자식 교육의 모습을 보였으며 또한 보스턴 사건과 같이 도덕적으로 떳떳치 못함은 자식들로부터 소외당하는 결정적 원인이 된다.

윌리는 남편으로서 자신의 힘든 점을 잘 알고 이해하는 아내와의 진실한 소통을 거부하고 그녀를 무시함으로써 부부간에 단절이 오고 자신의 죽음조차 이해하지 못하여 결국엔 아내로부터도 소외된다. 친구와의 관계에서 윌리는 그를 돕고자 하는 찰리의 충고를 무시하고 호의를 거절하여 결국엔 찰리와의 관계에서도 소외감을 느끼게 된다. 현실은 회피한 채 환상만 좇던 그는 주변사람들로부터 소외되고 결국 죽음이라는 비극적인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

『세일즈맨의 죽음』에서 밀러는 윌리의 비극적인 삶을 통해 현대 사회에서의 각박한 삶과 가족으로부터 소외당한 소시민들에게 성공적인 삶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진정한 인간관계를 주장함으로써 보다 넓은 안목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더불어 우리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인간의 본성에 대한 깊은 통찰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밀리는 그릇된 가치관으로 허황된 성공을 추구한 윌리의 죽음이 어떠한 것인지 단순히 보여주는 데 그치지 않는다. 그는 나아가 산업화된 사회에서 서로간의 무색해져버린 유대감이나 진실한 소통의 부재로 인한 소외의 문제를 윌리라는 한 세일즈맨의 인생을 통해 알리려고 한 것이다. 현실을 회피하고 환상을 좇으며 성공에 대한 그릇된 가치관에 대한 집착으로 끝내 자살한 윌리와 자신의 앞에 닥친 현실을 제대로 바라보며 성실히 살아온 찰리의 모습은 비교가 된다. 찰리의 모습을 통해 경쟁적인 사회에서도 자신의 위치를 잘 파악하고 자녀교육에 있어서도 자식을 자신이 못 다 이룬 꿈을 대신 이뤄주는 존재가 아닌 하나의 인격체임을 인정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결론적으로, 『세일즈맨의 죽음』을 통해 한 개인의 성공을 위한 삶을 위해서는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자신의 올바른 적성과 재능을 바탕으로 삶을 살아가는 건전한 가치관을 갖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더불어 개인은 가정과 사회 속에서 필연적이며 유기적인 관계를 맺는 존재임을 깨닫고, 서로를 이해하고 책임을 질 수 있는 도덕성을 가져야 한다. 또한 가족관계 속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여질 때 건강한 자아가 형성되며 동시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관계의 소외를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자기 자신이 처한 상황을 정확히 바라볼 수 있는 안목과 자신의 삶을 이끌어줄 올바른 가치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참 고 문 헌

I . Primary Source

Miller, Arthur. *Death of a Salesman*. New York: Penguin Books, 1998.

II . Secondary Sources

- 김정수. 『Arthur Miller의 작품세계』. 부산: 부산외국어대학교 출판부, 2004.
- 데이비드 스탠포드 클라크. 『한권으로 읽는 프로이트』 최창호 옮김. 경기: 푸른숲, 2002.
- 사공일. 「『아메리칸 뷰티』와 『세일즈맨의 죽음』에서 아버지의 죽음 비교」. 『국제지역학논총』 3 (2009): 65-92.
- 송명자. 『발달심리학』. 서울: 학지사, 2013.
- 에리히 프롬. 『에리히 프롬, 마르크스를 말하다』 최재봉 옮김. 서울: 에코의 서재, 2007.
- 이주희. 「『세일즈맨의 죽음』에 나타난 윌리 로만의 가치관과 가정교육」. 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2005.
- 조은영. 「『Death of a Salesman』에 나타난 소외의 문제」. 『한국영어영문학회』 29.2 (1983): 433-452.
- 조정문·장상희. 『가족사회학』. 경기: 아카넷, 2001.
- 최현정. 「『세일즈맨의 죽음』의 중년기 위기 연구와 목회상담 적용」.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2003.
- 프리츠 파펜하임. 『현대인의 소외』 황문수 역자. 서울: 문예출판사, 1994.
- Abbotson, Susan C. W. *Death of a Salesman, Critical Companion to Arthur Miller. A Literary Reference to His Life and Work*. New York: Facts On File, 2007.

- Bigsby, C. W. E. *Confrontation and Commitment: A Study of Contemporary American Drama*. Columbia: Univ. of Missouri Press, 1967.
- Bloom, Harold. *Arthur Miller's Death of a Salesman*. New York: Chelsea House, 2000.
- Carson, Neil. *Arthur Miller*. London: The MacMillan Press, 1982.
- Clark, Eleanor. *Old Glamour, New Gloom, Death of a Salesman: Text and Criticism*. Ed. Gerald Weals. New York: Penguin Books, 1996.
- Clurman, Harold. *The Success Dream on the American Stage, Death of a Salesman: Text and Criticism*. Ed. Gerald Weals. New York: Penguin Books, 1996.
- Dusenbury, Winifred L. *Loneliness in Death of a Salesman, Readings on Arthur Miller*. Ed. Thomas Siebold. San diego: Greenhaven Press, 1997.
- _____. *The Theme of Loneliness in Modern American Drama*. Gainesville: Univ. of Florida Press, 1967.
- Dillingham, William B. *Arthur Miller and The Loss of Conscience, Arthur Miller: Death of a Salesman: Text and Criticism*. Ed. Gerald Weales. New York: Penguin Books, 1996.
- Jacobson, Irving. "Family Dreams in *Death of a Salesman*," *American Literature* 47.2 (1975): 247-258.
- Miller, Arthur, *Arthur Miller: Collected Plays*. New York: The Viking Press, 1976.
- _____. *On Social Plays, Arthur Miller*. Ed. Robert A. Martin. New York: Da Capo, 1996.
- _____. *The Shadows of the Gods, The Theater Essays of Arthur Miller*. Ed. Robert A. Martin. New York: The Viking Press, 1978.
- Porter, Thomas E. *Acres of Diamonds: Death of a Salesman, Critical Essays on Arthur Miller*. Ed. James J. Martine. Boston: G. K. Hall, 1979.
- Rowe, Kenneth Thorpe. *A Theater in Your Head*. New York: FUNK and Wagnalls, 1967.
- Schneider, Daniel E. M. D. *Play of Dreams, Arthur Miller: Death of a Salesman:*

- Text and Criticism*. Ed. Gerald Weales. New York: Penguin Books, 1996.
- Sievers, W. David. *Freud on Broadway: A History of Psychoanalysis and the American Drama*. New York: Cooper Square, 1970.
- Weales, Gerald. *Man and His Image, Arthur Miller: Death of a Salesman: Text and Criticism*. Ed. Gerald Weales, New York: Penguin Books, 1996.
- William, Raymond, *The Realism of Arthur Miller, Arthur Miller: Death of a Salesman: Text and Criticism*. Ed. Gerald Weales. New York: Penguin Books, 1996.
- “소외” , 교육학용어사전, <<http://terms.naver.com/>> (접속일: 2017.03.27.)

<Abstract>

Causes and Aspects of Willy Loman's Alienation
in *Death of a Salesman*

Huh, Eun Hee

English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J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Song, Il-Sa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auses and aspects of Willy Loman's alienation in *Death of a Salesman*. Arthur Miller's masterpiece, *Death of a Salesman*, is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the main character Willy Loman, represented by a common man, has an anachronistic sense of value in a capitalist society where materialism is prevalent. And the process of life 's destruction after pursuing his own American Dream. The American dream that he dreams of is successful as a salesman, enjoying material abundance, but he is longing for idyllic life. Between these two contradictory dreams, he wanders, feels alienated and frustrated among the surrounding characters and society, which can be attributed to his personality flaws.

Willy shows a coercive aspect of unilaterally imposing his thoughts and arguments on others, and he feels alienated from sharing genuine communication with his closest family members. And Willy's self-formation embraces the different values of father, brother Ben, and David Singleman without filtering then Willy forms an uneasy self that does not belong anywhere else. Willy 's self - centered personality and uneasy self - formation make him

feel alienated from his family and society.

First of all, the children who are raised by his wrong values in relation to the family, especially the eldest son, Biff is wandering for over thirty without a certain job, and the younger son Happy grows up as an adult with a strong female bias. And as Linda repeatedly says that she would not understand Willy's death, we can see that he does not really communicate with her. In terms of social isolation, Willy is not really communicating with his only friend, Charley, and is in a fantasy during their conversation. Willy also feels alienated from the fact that Charley 's son, Bernard, has grown up as a good lawyer and has failed in his childhood education as well as watching the biff against him. In his relationship with Howard, who is portrayed as a capitalist society, Willy is assessed as incompetent and fired. He also lives in a tight-lipped apartment, but is still romantic and idyllic in his longing for the country. However, Willy recognizes internally that he wants to live in a place where he lives in the first place, so he is constantly dissatisfied with his surroundings and is completely alienated from society.

In conclusion, it can be seen that it is important for a person to achieve success through *Death of a Salesman* to have a sound value to grasp reality and to live on the basis of his right aptitude and talent. In addition, individuals must realize that they are inevitable and organic relationships in their homes and society, and have morality to understand and take responsibility for each other. Also, when they are understood and accepted each other in family relations, a healthy self is formed and at the same time a happy life can be obtained. Therefore, in order to escape the alienation of human relationships, we must recognize that we need an eye to see exactly what we are in, and a right value to lead our life.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August, 2017.